
2025년도 하반기

권역별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2026. 1.

명예해양수산관 평가위원회



목 차



I. 오시영, 허성림 명예해양수산관 [사모아]	3
II.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피지]	10
III.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파푸아뉴기니]	24
IV.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아르헨티나]	36
V. 박상천 명예해양수산관 [인도네시아]	47
VI.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나]	57
VII.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세네갈]	74
VIII.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뉴질랜드]	88
IX. 이동춘 명예해양수산관 [모리셔스]	99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오시영, 허성림

담당지역 : 사모아

보고기간 : 2025.7.~2025.12.



사모아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담당지역	사모아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3.10.15.	'25.10.14.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양어업협회 사모아 연락사무소 근무, 하와이 한국일보 사모아 통신원 활동('93~'98) · 사모아 한인회 재무 및 총무('94~'07) · 現 사모아 JI HYUN, INC.(수산업) 운영('01~) 			

○ 정기보고 4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유류, 주요 어종어가 동향, 어획량 보고
7. 8.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보고
8. 10.	
9. 9.	
10. 11.	

7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07-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7.	Clipper Oil (American Samoa)	\$2.75 gallon	Diesel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0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0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금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작성자		오시영			

8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08-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7.	Clipper Oil (American Samoa)	\$2.89 gallon	Diesel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7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7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7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7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작성자		오시영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09-09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6.	Clipper Oil(American Samoa)	\$2.97 gallon	Diesel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7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7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7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작성자	오시영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10-11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9.	Clipper Oil (American Samoa)	\$2.87 gallon	Diesel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0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0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금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작성자	오시영				



담당지역	사모아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5.10.15.	'27.10.14.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조산업, 마린기업, 선일해운 등 냉동사 및 기관장 승선('74~'01) · 사모아 한인회 회장('18~'19) · 現 사모아 H&H, INC. 수산업 회사 대표('01~) 			

○ 정기보고 2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보고
11. 8.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보고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 해양국립기념물 내 상업어업 재개 검토 착수 · 사모아, 세계 식량의 날 맞아 식량, 농수산 시스템 강화 의지 재확인

11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11-1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nn Fishing Company Limited	LadyAnn 2			파고파고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6.	Clipper Oil (American Samoa)	\$2.94 gallon	Diesel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9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가다랑어	(라운드)	\$1,40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7톤의 어획율을 보임.</p>					
작성자		허성림			

12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사모아	보고일	2025-12-29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29.	Clipper Oil (American Samoa)	0.78 USD/L	경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9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800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서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 해양국립기념물 내 상업어업 재개 검토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태평양 해양국립기념물(MNMs) 내 상업어업 전면 금지 조치가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영향 분석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로즈한초·마리아나 해구·퍼시픽 아일랜드 헤리티지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회의에서 상업어업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임. -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위해 제한적 어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지표를 전제로 한 단계적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식량안보와 생계,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병존했고 2024년 서태평양 원양어업 매출이 약 1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됨. <p>○ 미국, 제22차 WCPFC 회의에서 참치 관리 강화와 전자모니터링 도입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2025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서부·중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참치 자원 관리와 수산 기술 도입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남태평양 알바코어 수확전략 채택과 눈다랑어 어업 관리 강화를 주도했음. 또한 전자모니터링 제도 도입 논의 구조를 확보하고, IUU 어업 대응, 강제노동 식별, 혼획 저감 등 보전·형평성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자국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자원보전 기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p>○ 사모아, 세계 식량의 날 맞아 식량·농수산 시스템 강화 의지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아는 2025년 10월 29일 아피아 푸갈레이 시장에서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 2025)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사모아 농수산부와 FAO 태평양 도서국 소지역사무소가 공동 주최해 200명 이상이 참석했음. 행사에서는 농업·수산업·식량시스템 투자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의 핵심이라는 점과 정부·지역사회·개발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FAO는 사모아가 태평양 지역 식량·농업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함. 					
작성자		허성림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김종태

담당지역 : 피 지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피지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4.6.1.	'26.5.31.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NGAN Fisheries Ltd(합작회사) 설립·운영 · 재피지 한인회 운영이사 역임('07~'09) · 재피지 한인골프회 회장('10~) · 現 C.K.P Fishing Co.,Ltd 이사('98~)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10.	· 주피지 대한민국대사 피지 총리 예방 등 6건
8.11.	· 남태평양 참치 새 협정 체결 등 4건
9.10.	· 피지, 통가, 바누아투 해양 탈탄소화를 위한 5개년 이니셔티브 출범 등 5건
10.12.	· 주피지한국대사관 피지 기후대응 지원 등 8건
11.11.	· 불법어업 단속 강화 위한 어업법 개정안 통과 등 6건
12.9.	· 수바항 버려진 선박철거 및 난파선 관리체계 강화 등 5건



보고구분	정기	국가	피지	보고일	2025-07-1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토니나 3호	2025-06-19/ 2025-06-25	휴식 및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10.	TOTAL	\$1,354/MT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2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 수산업 동향					
<p>○ 20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출장업무(ODA, 해양교육사업관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진수 교수 등 총 10명은 ODA 및 해양교육 사업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피지해양안전청(MSAF)과 피지국립대학교 태평양해양연구센터(FNU-PCMS)를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기관 간 교류를 진행하였음 <p>○ 김진형 주피지 대사 이임 예방 - 라부카 총리, 한-피지 협력 기여에 감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중 이임하는 김진형 주피지 대한민국대사는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를 예방했으며, 총리는 양국 간 양자관계 증진에 기여한 김 대사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음. 총리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총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피지의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해왔으며, KOICA의 "푸르고 건강하며 안전한 섬" 비전에 부합하는 보건, 환경 보호,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이 특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음. 김 대사 재임 중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타마부아 국립건강재활센터 설립, 타베우니 나이셀레셀레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오발라우에서의 피지농업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등이 있음. <p>○ 중국대사관, 태평양 내 역할 관련 라부카 총리 발언에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피지 중국대사관은 피지 라부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태평양 활동은 지정학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 협력으로 지역 자립과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군사기지 건설 등 영향력 확대 의혹을 부인하고, 태평양 국가들이 외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외교관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함. 					

기타사항

- 피지 노동시장 구조 - 농업 중심의 고용현황 지속
 - 피지 노동시장은 여전히 농업 중심이며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장 및 관련 판매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2023~2024년 조사 결과, 숙련 농업·어업 종사자가 18.4%, 서비스·판매 직종이 18%를 차지함. 농촌은 농업, 도시는 서비스·판매 분야가 주도적이며 사무·기술·전문직 비중은 낮아 노동력의 사무직 전환이 더딤. 공식 부문 고용은 194,733명, 비공식 부문은 97,654명으로 고용구조의 이중성이 지속됨.
- 피지 경제 성장률 3.2%로 하향 조정 - 관광 정체 전망 속 소비·투자가 견인
 - 피지 중앙은행 산하 거시경제위원회는 2025년 피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2%로 소폭 하향 조정함. 이는 보다 엄격한 경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올해 초 5개월간의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관광 부문에서의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임. 위원회는 2024년에 기록적인 방문객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추세와 업계 피드백에 따라 2025년에는 방문객 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가 내수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예산 또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민간 투자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피지 정부, 생활비 경감 위해 VAT 및 관세 인하 발표
 - 피지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22개 필수품목에 대해선 0%를 유지해 국민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동시에 일부 국내 제조업체 보호조치를 재검토하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철폐하기로 했음. 닭고기 내장 관세는 42%→15%, 냉동 연어 등 일부 생선은 0%로 낮추고, 감자·마늘·양파·차·식용유 등 생필품과 양고기 제품은 면세를 유지·확대했으며, 유제품은 5%를 유지하되 특정 기업 특혜를 폐지해 수입 경쟁을 공정하게 함. 이는 수입 식품 가격 안정과 물가 억제를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임.

작성자

김종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피지	보고일	2025-08-11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8.	TOTAL	\$1,327/MT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2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 수산업 동향					
<p>○ 어업부문 재도약 위해 26년까지 9,630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 어업부문은 코로나19 이후 감독과 인프라의 심각한 격차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산업 규모는 2억 7,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수익의 약 8%를 차지했음. 정부는 2026년까지 연구, 시행, 인프라 강화에 9,6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연구·연안어업·양식어업·규제 개혁·보급 및 자문서비스·교육·어업활동 모니터링과 집행 등 전 분야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배정할 계획임. - 어업부 장관은 정책 실행을 위해 강력한 이행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역량 강화, 보존어업, 시장 진출 경로 확대, 모니터링·감시·집행, 어류집약장치(FAD)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함.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수입 증대와 해안 지역사회 생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p>○ 남태평양 참치 새 협정 체결, 지속가능한 관리, 수출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어업 부문은 남태평양 참치에 대한 새로운 지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귀중한 해양자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수산부장관 Alitia Bainivalu은 20년간의 협상 끝에 태평양 섬나라들이 참치 어획량에 대한 비례적 할당 제도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경쟁적 접근방식을 대체하여 참치어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함. - 장관은 이것은 획기적인 성과이며, 지역적연대, 협력 및 상호존중의 강력한 증거이며,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참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확립할 것으로 이협정이 피지가 일본과 미국시장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선 및 냉장참치를 수출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p>○ 해초묘목장 확대로 지역사회 소득·해양자원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 수산부와 현지 그룹이 협력해 진행한 해초 모종 사업에서Cakaulevu에 위치한 Dama Cluster 묘목장에 19개의 해초 모종이 성공적으로 배치됨. 이번 이니셔티브는 지역 주민의 생계 향상과 해양 자원 관리 촉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으며, 매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초의 최적 성장과 건강을 보장할 예정임 - 프로젝트는 향후 6주 동안 묘목장을 확장해 더 많은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용량을 늘릴 계획이며, 해당 묘목장은 다마와 인근 마을의 핵심 해초 공급원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양식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게 됨. 이는 해안 지역사회에 대체 소득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자원 보존을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도 맞물림.

- EU, 피지 가공수산물에 글로벌 소싱 면제 승인, 관세 없이 EU수출 가능
 - 피지 무역중소기업부는 EU가 가공 수산물에 대해 글로벌소싱 면제를 승인한 것을 환영함. 이 조치로 2025년 7월 31일부터 비원산지 원료로 피지에서 가공한 수산물이 IEPA 기준 원산지로 인정돼 EU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국 선박에서 원료 공급을 받고, EU 수출 확대·가공업체 수익 증대·일자리 창출·어업·제조 성장 촉진을 기대하며, 피지를 고부가가치 해산물 생산의 지역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기타사항

- 중국-피지, 군사기지 아닌 역량강화, 평화유지 중심 방위협력 추진
 - 중국은 피지·태평양 지역에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없으며, 방위협력을 훈련·재난 대응·평화유지 등 개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올해 약 60명의 피지 군 인원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며, 피지 국방부는 이를 상호이익 기반의 다자 협력 기조 속에서 이어가겠다고 했음.

작성자

김종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피지	보고일	2025-09-08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NB 인터네셔널	SNB 101호	2025-08-23/ 2025-06-25	휴식 및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10.	TOTAL	\$1,349/MT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3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 수산업 동향					
<p>○ 피지·통가·바누아투, 해양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5개년 지역 이니셔티브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통가·바누아투가 저탄소 해상운송 로드맵과 MR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5개년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선대 현대화를 추진함. 피지는 2,100만 달러를 투자해 시범 인프라와 MRV를 구축하며, 이번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GGGI·한국 해양수산부가 협력함. <p>○ 피지 수바에 IMO 지역사무소 개설…태평양 해양안전·탈탄소화 허브로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 수바에 개설된 IMO 지역사무소(RPO)가 태평양의 해양안전·오염방지·탈탄소화·법률개혁을 지원하며 역량 강화의 허브로 출범함. Ro Filipe Tuisawau 장관은 기후변화와 해양 거버넌스 위기를 지적하며 피지 교통부문 탈탄소 전략을 RPO가 국제기후 목표에 맞춰 뒷받침할 것이라 밝힘. IMO 사무총장과 SPC 부사무총장도 RPO가 지역 협력과 Pacific One Maritime Framework의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함. <p>○ 솔로몬, PIF 회의 참가국 제한 결정…피지 총리 “태평양 지역 분열 심화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의 Sitiveni Rabuka 총리는 솔로몬제도가 다가오는 PIF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약 20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포럼의 통합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는 과거 마이크로네시아 탈퇴 논란 때 피지가 부당하게 비난받았으며 포럼의 정신과 파트너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솔로몬제도 Jeremiah Manele 총리는 이번 결정이 주권적 판단이며 기후재정과 ‘평화의 바다’ 구상 등 핵심 의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만과 수교 중인 태평양 국가 					

들의 반발과 미·중 간 긴장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Rabuka 총리는 지역 연대가 필요하며 분열을 경계함.

기타사항

- 피지, 관광수입 사상 최고치 기록…미·중·영 시장 성장 주도
 - 피지는 2023년 7~9월 분기 7억7,500만 달러로 최고 관광수익을 올렸으나 2024년 1~3월 비수기에는 4억4,1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4~6월 7억1,700만 달러로 회복하며 전년 대비 16.3% 증가함. 미국은 41.8%, 중국은 150%, 영국은 58% 성장했으며, 호주·뉴질랜드가 여전히 주축이나 신흥 시장 성장으로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피지 농업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 중국은 피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전 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이는 중국대사가 농업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강조된 바 있음. Zhou Jian 주피지 중국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농업분야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기술협력, 지식공유,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잠재적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함.
- 피지 무역, 주요 파트너국 수요 변화 반영하며 수출·수입 혼조세
 - 피지는 대중국 수출이 금·목재칩·카바 중심으로 2,360만 달러로 늘고 대미 수출도 3,55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며 일본·싱가포르 수출도 상승함. 수입은 싱가포르가 1억4,300만 달러로 최대이며 중국·뉴질랜드·일본·호주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 재수출은 통가로 42.7% 감소했지만 싱가포르·투발루는 증가했고 중국은 30.5% 감소함. 이는 주요 파트너국의 수요와 무역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임.

작성자

김종태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피지	보고일	2025-10-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10.	TOTAL	1.18 USD/L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4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피지총리, BBNJ 조약 이행 통한 해양보존 리더십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공해조약회의에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BBNJ 조약 발효를 계기로 연안국 협력과 포용적·데이터 기반 해양보존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자국 해역 100% 관리와 30% 해양보호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 피지의 해양 리더십과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음. <p>○ ADB, 피지 수자원·해양건강 개선 위해 1억3,500만 달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피지의 수자원 안보와 해양·환경건강 강화를 위해 1억2,500만 달러 차관과 1,000만 달러 보조금을 승인하고, 수바 폐수처리장 개선과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통해 수질 개선·해양생태계 회복·물 절약·탄소감축 및 태평양 도서국 상하수도 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기타사항					
<p>○ 피지, NDC 3.0승인으로 2035년까지 기후리더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2025~2035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가결정기여(NDC3.0)를 승인해 감축·적응·해양보호를 아우르는 기후위험 관리 전략을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고, 1.5°C 목표 달성과 함께 해안관리·물안보·농업·재난회복력 등 핵심 부문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p>○ 주피지 한국대사관, 기후적응사업 중심으로 피지의 기후대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피지 한국대사관은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재난대피센터, 해양 열에너지 변환(OTEC) 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 중심의 지원을 통해 피지의 재난 대응능력과 탄소감축·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p>○ 피지, 물가안정과 가계지원 병행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3.2%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정부는 확장적·목표지향적 재정정책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 3.2%를 유지하면서 물가 하락과 소득지원, 사회복지 재원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피지, 수교 50주년 맞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중국과 피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 상생협력,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음. 양국은 투자 확대, 장학금 제공,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함. 주피지 중국대사 쟈(Jian)은 이러한 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양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 것이라고 하며, 협력의 다각화를 강조했다. 또한 '진보의 동반자(Partners in Progress)' 구상을 통해 중국은 피지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현지 투자를 촉진하며, 기후행동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작성자

김종대

11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페이지	보고일	2025-11-1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비고
동원산업	동원212호	2025-10-14 / 2025-10-23	선원교체 및 정비	수바항	참치연승선
동원산업	동원203호	2025-10-14 / 2025-10-24	선원교체 및 정비	수바항	참치연승선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11.	TOTAL	1.16 USD/L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5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피지, 불법어업 단속 강화 위한 어업법 개정안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 의회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특정 위반사항에 대해 어업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80년 된 기존 법률을 대체해 피지의 어업 관리 체계를 현대적 기준과 국제 모범사례에 맞추기 위한 조치임. - 피지 어업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850개 이상의 해안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히며, 지속 불가능한 어획 관행과 자원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자원 소유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공무원에게 불법어업 관련 증거를 수역뿐 아니라 시장, 가공공장, 주택 등지에서도 추적·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p>○ 피지, 참치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의지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의회 연설을 통해 서부·중부 태평양 참치자원이 과학적 관리와 역내 협력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할당량 준수·어장 폐쇄·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참치 보존과 해양관리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음. <p>○ 피지, 현지 가공 확대 통해 참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피지 브랜드 참치제품의 현지 가공 및 수출을 확대하여 참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어업부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약 150만 톤의 참치가 어획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가공되어 태평양 국가들이 일자리와 수입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음.

- 피지는 숙련된 연승어선단과 해안 가공공장을 모두 보유한 몇 안 되는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로, 일본·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장관은 정부가 고부가 가치 해산물 수출을 포함한 참치 가치사슬 전반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피지를 태평양 어업 허브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피지와 파푸아뉴기니가 공동 주최한 제9회 태평양 참치포럼에서는 태평양 어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혁신, 형평성, 지속 가능한 무역이 주요 의제로 강조되었음.

기타사항

- 피지-일본, 무역·투자 협력 강화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피지는 2025 오사카 엑스포 참여와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재생에너지·기후회복력·디지털·농업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음
- 피지총리, 태평양-ACP 무역장관회의서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 강조
 - 피지 총리는 태평양-ACP 및 포럼 무역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2050 블루 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무역 긴장,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국제 경제가 재편되는 불확실한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장관들이 유럽연합(EU)과의 협력, 태평양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PTSDP) 등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음.
 - 총리는 이번 논의가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기업 발전을 지역 무역성과와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태평양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한 산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또한 태평양-ACP 무역장관회의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 국가 중 태평양 회원국들이 EU와 무역 및 개발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핵심 포럼으로, 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음.

작성자

김종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피지	보고일	2025-12-09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8.	TOTAL	1.17 USD/L	MGO	내주변동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600/ ton	로인가공용(PAFC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피지 수바항 버려진 선박 철거 및 난파선 관리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사이클론 시즌을 맞아 수바항 내 버려진 선박의 안전 확보와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44척 중 17척이 철거되고 27척이 잔존하고 있음. 공공사업·기상·교통부는 버려진 선박이 해상안전, 환경, 항만 인프라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어 왔다고 밝힘. - 정부는 나이로비 난파선 제거협약 가입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해당 협약을 통해 난파선 신속 제거, 선주의 비용 부담과 의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해양안전청, 항만공사, 해군 등과 협력해 선박 계류 및 재배치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p>○ 피지, IUU 어업으로 연 5천만 달러 세수 손실... 단속체계 대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인해 매년 약 5천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블루이코노미와 식량안보, 해양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피지의 광대한 130만 km² EEZ와 제한된 단속 역량으로 인해 취약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첨단기술 도입과 법제 강화, 지역 협력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 중임. 정보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해군자산을 활용한 물리적 순찰도 병행하고 있으며, 포럼어업청(FFA)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조하고 있음. 2025년 개정 어업법은 단속 권한 확대와 연안 고정벌금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 <p>○ 피지, 세계어업의 날 맞아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통한 수산업 혁신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는 세계어업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회복력 있는 수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함. 2025년 주제인 "수산업 부문의 청색 변혁"은 수산업이 국민복지와 고용, 식량안보, 문화유산에 핵심임을 반영함. 약 130만km² EEZ를 보유한 피지는 해안지역 주민 생계를 지탱하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어업 관리의 현대화, 혁신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임. 정부는 블루 태평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타 사항					

- 중국-피지, 바누아레부 인프라 사업 공식화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
 - 피지 총리와 저우젠 주피지 중국대사는 바누아레부 섬에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중국 지원 인프라 사업을 공식화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로 개선과 22개 교량 신설을 통해 61개 마을, 15개 학교, 병원, USP 및 FNU 캠퍼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피지와 일대일로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제적 유대 강화와 피지 국가개발 우선 순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피지 설탕산업 생산 감소 속 정부 지원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방어
 - 피지 설탕산업은 최근 5년간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톤당 최소 85달러 가격 보장과 국제가격 강제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업계와 정부가 생산성 제고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 피지-일본,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으로 기후·해양·교육 협력 강화
 - 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도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55년간 이어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 공동성명서 서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재난대비, 교육·문화 교류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피지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음

작성자	김종태
-----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정승화

담당지역 : 파푸아뉴기니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파푸아뉴기니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5.5.10.	'27.5.9.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93 주PNG 한국대사관 · '99~'05 Wamomo Seafoods Ltd. · 現 PNG 한인회 부회장 · '05~現 United Seafoods Ltd.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 10.	· PNG 수산정책의 변화 설명
8. 11.	· 일본정부의 PNG 무상원조 및 JICA 연안개발사업
9. 8.	· PNG-한국, 양자협상 요약
10. 10.	· PNG 해삼사업 실시 관련 설명 등 1건
11. 10.	· 2025년 PNG 건해삼 조업과 시장동향
12. 9.	· 주변국 대 PNG 지원사항 보고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07-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8.	TWL Logistics Ltd	K3.2266=USD 0.7734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PNG 수산정책의 변화</p> <p>○ PNG 주낙어선 라이선싱 시스템 변화와 중국 기업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 기준 파푸아뉴기니(PNG)에서 참치 주낙어선(Longliner)에 대한 라이선싱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기존에는 항공물류를 통한 일본 수출을 전제로 한 빙장선 조업과, 외국 국적선의 컨테이너 수출형 냉동업 조업 두 가지 방식이 허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 선박의 PNG 국적 전환, 그리고 수산청(NFA)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직접 참치 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만간 중국계 주낙어선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됨. 이는 PNG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고수해 온 자국민 중심 수산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부정부패가 수산업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한 대표적 사례로 해석됨. <p>○ 수산업 내 중국 진출의 부작용 사례와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건해삼 산업과 Torres Strait 바닷가재 어업에서도 중국인의 진출로 인해 자국민 보호정책이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이 훼손되었음. 무분별한 자원 남획, 불법조업, 금지된 전기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연안 주민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치안 부재까지 초래되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중국 기업의 문제점은 현지 법질서와 환경 보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있으며, 이는 결국 자국 어민의 몰락과 자원 고갈을 불러옴. 그러나 부패가 만연한 정부 구조 속에서 오히려 중국식 사업 모델이 자국 기업보다 우대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 <p>○ 한국 수산업의 대응 가능성과 기회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선단의 진출 허용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보면 한국 수산업에도 PNG 진출의 문이 열린 셈임. 단, 이에 따르는 조건과 정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한국은 단기 이익 중심의 중국과 달리, 장기적 파트너십과 선진 수산기술을 바탕으로 PNG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접근이 가능함. 특히 정부 간 협약 및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국 수산업 쇠퇴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업구역 안정 확보와 양국의 수산자원 관리에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음. 한국은 기존의 소극적 원양 진출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외교 차원에서 식량 안보 및 개도국 지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수산 외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정승화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08-11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8.	TWL Logistics Ltd	K3.3177=USD 0.7871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PNG의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 26일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장관, 청장 및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수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였음. 지난 23년에 싱가포르에 파푸아뉴기니 수산물 마케팅을 위하여 상점 및 냉동고 지원 등을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장의 지도하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홍콩 및 중국 광둥성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오던 바, 이달에 파푸아뉴기니 측 정부 요인의 방문이 이뤄졌음. - 이러한 배경에는 PNG의 수산업자들의 수준 미달로 인하여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제약(정보 및 지식)이 원인으로 보여짐. 수산청은 자국 어민들과 자국 수산업자들의 원활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형태의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푸아뉴기니 자체 수산업계의 규모가 미미한지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현지 수산업계의 성장 여부가 숙제로 남음 <p>○ 일본정부의 PNG 무상원조 및 JICA의 연안개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청 소식에 의하면, 일본이 무상원조로 수산청에 9100만불을 지원한다고 함. 이는 부두 확장 및 보수 지원사업과 2척의 신조 경비정 지원을 통하여 인니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함임. 또한, 지방 몇 곳에 수산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함. 이로인하여 일본 선망선들은 입어료 협상 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함. 위에 언급된 경비정 2척에 대해선 지난 2022년에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파푸아뉴기니 지원사업으로 진행,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조사관 2명이 파푸아뉴기니 수도에 방문하여 수산청 및 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무소식이었음.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동 건에 대한 무상지원을 한국과 일본 동시에 요청 했었던 것으로 보임 - 일본 JICA 현지 Coastal Develop 사업이 2023년 말서부터 Gulf of Papua 지역 2곳에서 진행이 되어 왔음. 지난 7월 31일 동건과 연관된 일본인(5명)과 현지사업가((1명)이 본사를 방문하였음. 방문 목적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함. 일본인중 1명은 이곳에서 JICA 단원으로 활동하여 현재는 PNG새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들은 현지에 태양광 발전으로 돌리는 냉동고를 지원해주고, 현지인들의 어업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어업전문가 2인과 YAMAHA에서 파견된 2명이 포함되어 있음. 두번에 걸쳐진 미팅을 통하여 현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의 조언을 해주었음. 					

- 위에서 본 중국과 일본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PNG 수산청으로선 중앙정부의 수산청에 대한 압력(중국기업 진출에 협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과 일본 선망선 입어료의 저가 입찰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남.
- PNG 수산청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했던 경비정 2척의 건도 흐지부지 되었으며, 민간기업의 진출은 입어료를 지불하는 것 외엔 거의 없는 바, 수시로 불평을 해왔음. 이에 본인은 금년 12월 KOICA의 PNG 사무실 개설 시,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고, PNG 수산업자 및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실질적으로 35년간의 PNG 세월에서 한국과 PNG간 수산분야에 대한 협력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해수부, 대사관, 원양산업협회, KOICA를 통하여 명년에는 어떠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하겠음.

작성자	정승화
-----	-----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09-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8.	TWL Logistics Ltd	K3.2277=USD 0.763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대외활동 내역					
<p>○ 이민국 차관과 우리 선망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선망선의 입출항 편의를 도모하고, 어선 및 운반선의 입항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설명함. 또한 입출항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PNG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PNG 수산업 동향</p> <p>○ 해상사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2020년부터 시행해온 금어기를 10월 해제하여 채취·가공·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8월 공고 이후 200건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됨. 수산청은 외국인(특히 중국계) 진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중국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부패와 고위 공무원 개입으로 개혁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큼. 금어기 동안에도 불법 조업이 계속됐고, 수산청은 공권력 투입 대신 금어기 연장으로 문제를 악화시켰음. 2025년에도 다수의 라이선스 발급이 예상되나, 결정이 3주 전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p>○ PNG SEZ(Special Economy Zones) Summit 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29~31일 포트모레스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특구 정상회의는 총리 기조연설과 투자부장관 리처드 마루의 주재로 개막했으며, 기존 외국 투자기업과 중국 수산업 대기업들이 참석함. - 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국제무역투자부 산하 SEZA가 설립돼 수입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Madang주 PMIZ 지역은 30년간 지연된 참치 가공 프로젝트가 현정부의 관심 속에 재추진 중임. - 이를 위해 수산청 산하 FCL이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청과 국제무역투자부가 경쟁적으로 지원 중임. 또한 라바울과 라에 지역도 참치 가공공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라에는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만 부두 협소가 문제로 지적됨. 					
작성자		정승화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10-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8.	TWL Logistics Ltd	0.7734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해삼사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보고서에 실시하기로 한 동 사업은 수산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뤄진 결과, 10월 17일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함. 보통 이 라이선스는 지역별로 쿼터에 의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는데 반해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이 횡행한 데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몇몇 지방에 한해 라이선스가 발급될 예정임 - 이 사업은 보통 Buyer's, Storage, Export License의 3가지로 분류됨. 하지만, 금년에는 수도 Port Moresby에 Export License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동안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임.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수산업계임. 이는 많은 불법 어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임. 이는 곧 현 수산청의 감시,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기도 함. <p>○ PNG Purese Seiner Vessel Days 정책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22~23일 원양협회, PNG 입어 선망선사, PNG 수산청 간 양자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재협상 일자를 11월 7일로 합의한 상태에서 종료되었음. PNG 수산청은 VALATOP 시스템을 통한 자국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측의 절충 요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대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반론 제기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으며, PNG 측은 이번 협상을 원만한 타결보다는 자국의 강력한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PNG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선사의 높은 조업 효율성, 타국과 달리 협상이 부담스럽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필리핀·대만·일본과 달리 실질적인 현지 투자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PNG 정부는 참치 자원을 기반으로 한 내륙 가공산업 확대와 2차 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LBFV 및 PNG Flag 정책, 'Hub of Tuna in South Pacific' 구상을 통해 자국 및 역내 도서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Fisheries Capital Limited(FCL)를 설립하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독려해왔으나, 행정 역량 한계로 계획 이행은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 PNG는 군도수역을 활용해 자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창출, 자원 확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치 가공산업을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과거 필리핀과 대만의 현지 투자가 성공 사례로 작용한 만큼, PNG는 단순 입어료 수입을 넘어 한국 측의 실질적인 현지 투자와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한국 원양산업 협회와 선사들은 PNG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립보다는 상호 요구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향후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작성자

정승화

11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11-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10.	TWL Logistics Ltd	0.7871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input type="checkbox"/> 2025년 PNG 건해상 조업과 시장동향</p> <p>○ 중국 해상 공급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로몬 600톤, PNG 800톤 : 총 1,400톤 예상된 물량이 중국 시장으로 공급될 전망 <p>○ 해상의 가격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범 중국권의 해상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평균 20~30%에 이른다. 이는 중국뿐 만이 아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많은 화교권의 국가들도 포함된 것임 - 1990년대 이전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주도하였으나, 1991년 이후 중국인들의 해외 직매를 계기로 점차적으로 중국인 진출이 이뤄진 이후에 현재는 거의 중국인들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으로 보임. 이를 다시 말하면 이전에 중국이 홍콩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던 것이 이제는 역전이 된 상황임 - 중국의 불경기로 인한 자체 시장의 축소 및 중국 정부는 GACC(중국해관총서 : 중국정부의 세관 기관으로 수입 및 수출업무 총괄 부서)주도의 수입조치 강화 등으로 남태평양의 많은 도서국들은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안되고 있음 <p>○ PNG 해상 어어업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해상 금어기가 시행된 후, 2017년 다시 재개되기까지 동 자원에 대한 운영 계획은 그 이전보다도 못한 상태로 시행됨. 중국인들의 국내 시장 직매가 이전에는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그것을 용인하는 상태로 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진출은 불법과 합법의 줄타기를 하는 형태로 진보되는 중이며 이로인한 PNG 자원은 고갈되고 자국 어민들은 정당한 가치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 PNG는 중앙정부의 무능과 부패, 수산당국의 근시안적 태도와 정책의 단절, 자국산업에 대한 무의지와 반복되는 실패, 지연, 직장 내 부정 카르텔의 강성, 그리고 자포자기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p>○ 중국 상인들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인들은 자원의 빠른 고갈을 초래하고, 가치 창조가 아닌 가치 하락을 주도하며, 타국 법과 규범을 무시한 부정, 부패 행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성을 포기한 근시안적 사업태도로 PNG 해상산업의 자립을 저해하고, 중국정부과 개인들의 무지와 이기주의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작성자		정승화			



보고구분	정기	국가	파푸아뉴기니	보고일	2025-12-09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8.	TWL Logistics Ltd	0.77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주변국 대 PNG 지원 사항</p> <p>○ 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태평양의 주요 국가이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공동 어로 구역을 운영하는 이웃 국가로서, 호주는 파푸아뉴기니(PNG)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PNG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음. PNG는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올해는 독립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함.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남태평양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는 호주는 PNG가 지정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의 중국인 활동까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PNG 서부주(Western Province)에 대규모 수산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중국의 진출이 무산된 바 있음. 서부주는 호주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당시 중국의 움직임은 호주의 전략적 후방을 위협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기도 하였음. 이후 호주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존 공동어로 조약에 대해 다시 관심을 표명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PNG를 더 이상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만 인식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평가됨. <p>○ 중국 (본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29~31일 포트모레시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특구 정상회의는 총리 기조연설과 투자부장관 리처드 마루의 주재로 개막했으며, 기존 외국 투자기업과 중국 수산업 대기업들이 참석함. - 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국제무역투자부 산하 SEZA가 설립돼 수입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Madang주 PMIZ 지역은 30년간 지원된 참치 가공 프로젝트가 현정부의 관심 속에 재추진 중임. - 이를 위해 수산청 산하 FCL이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청과 국제무역투자부가 경쟁적으로 지원 중임. 또한 라바울과 라에 지역도 참치 가공공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라에는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만 부두 협소가 문제로 지적됨 <p>○ 중국 (화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NG에는 다수의 중국계 상인이 진출해 있으며, 통상 이들을 화교로 분류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 과거 중국 본토 출신 인력은 주로 기존 화교 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PNG에 정착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화교가 중국 본토 출신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구조로 역전된 상황임. - PNG에서는 화교나 중국계 사업자 중에서 직접 조업선을 보유하고 조업을 수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이는 빈약한 인프라와 인력 여건, 낮은 부가가치 구조의 수산업 환경, 그리고 내국인 보호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외국인의 본격적인 진출이 현재까지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임. 다만 2023년 이후 중국계 연승(Longline) 어선의 진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화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임. 일부 화교는 수산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부패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연근해 어업을 넘어 선망어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편 대만계 화교는 비교적 오랜 기간 PNG에서 활동해 왔으며,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 수완을 통해 PNG 수산업 전반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평가됨. 과거에는 PNG 연승어업(Longline)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으로의 운송 문제 등 물류상 한계로 인해 일부는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PNG 수산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높은 편임. 또한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LBFV 사업에 진출하여 그 성과를 누렸으며, 최근에는 선망선을 신조하는 등 PNG에서 공격적인 형태의 선망어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

- 일본은 JAICA 활동이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PNG 조업선 활동 역시 일본 기업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90년대 말 조업 활동이 현지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직접적인 국내 수산업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같은 시기 Sanko Busan이라는 회사가 로컬 연승(Longline) 어업을 운영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대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수출과 운송 여건 등의 문제로 결국 철수하게 되었음.
- 다만 이후에도 양자협약에 따른 알바코어(Albacore) 조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망선의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대규모 교섭단이 방문해 비교적 원활하게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JAICA와 ODA 등을 통한 일본의 막대한 현지 지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중반 일본은 PNG 수산청을 통해 약 9천 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일부는 이미 집행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PNG 측 관리들이 일본에 대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를 먼저 논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음. 보통 PNG 국민성은 외부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표시가 크지 않은 편이나, 스스로 보은의 방안을 논의하는 관리들의 태도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음.
- 일본은 경비선 2척 지원, 부두 건설, 각 지역 로컬 수산시장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PNG 수산청은 양자 협상 과정에서 입어료 인하 문제까지 자발적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또한 야마하(Yamaha)는 모터와 딩기(Dinghy) 분야에서 PNG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JAICA와의 협업을 통해 연안 어업 개발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PNG 수산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점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필리핀

- 현재까지 PNG에 선망어선 투입과 참치 캔 공장 가동 등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해온 국가는 아 이러니하게도 필리핀임. 선망선 보유 규모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망 관련 2차 가공 분야 역시 필리핀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선박의 노후화와 소형화로 인해 경쟁국인 한국, 대만, 일본에 비해 생산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필리핀 선사들은 일찍이 LBFV 및 PNG 국적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VD(Vessel Day) 비용을 절감하고, 군도 수역에 선제적으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확보해 왔음. PNG의 낙후된 인프라와 높은 2차 가공 비용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지만, 수산청과 정부의 느슨한 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선사들은 2차 가공보다는 조업 수익 중심의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현상은 대만 선사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한국 선사들은 자국 선사 간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장들과도 동시에 경쟁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 한편 필리핀 선사들과 정부는 PNG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원조나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은 거의 없으나, PNG가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과 가공 수산물 수출을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수산청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

- PNG에 원양선단이 진출한 지는 4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그동안 PNG 수산청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나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작성자	정승화
-----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이상우

담당지역 : 아르헨티나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아르헨티나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4.6.1.	'26.5.31.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창인터네셔널 근무(부산소재 수산 무역)(‘01) · 해창인터네셔널 페루법인 대표(UltraFrio s.a.c)(‘02) · Sermar s.a 대표(아르헨티나 소재 수산물 해외유통)(‘04) · Cipromar s.r.l, 대표(아르헨티나 소재 수산물 국내유통)(‘07) · 現 Kargeexport s.a 대표(수산물 가공 수출)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 8.	· 정부, 수산물 무역 통제 관장하는 규칙 폐지 등 4건
8. 12.	· 연골어류에 대한 어획량 조정 등 7건
9. 10.	· 불법·미보고·무규제(IUU) 어업 반대의 날 행사 등 3건
10. 8.	· 수출 관세 면제 요구 등 3건
11. 8.	· 2025년 수산물 수출 동향 요약 등 2건
12. 7.	· 2026년 오징어 시즌 개막일 결정 등 2건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07-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9.	EPSOL YPF (국영기업)	1.14 USD/L	MGO	환율안정과 개선되는 정책으로 각종 수입자원의 단가 하향조정	
대외활동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 수감중인 한인 수감업자 면회 및 법적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으로 4월9일 인터폴에 의해 체포된 76세 한인수산무역업자가 본국송환을 거부하여 연방경찰서에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고령을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석방되도록 유도/출감 시킴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코수르(Mercosur)는 관세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 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6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는 공통대외관세(CET) 예외 조항 확대가 결정되어, 회원국들이 최대 5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르헨티나는 이를 계기로 EU 등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이어진 EU와의 협상은 2025년 말 체결을 목표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음. 특히 EU와의 FTA는 수산물 관세(현행 12%)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연안 경제와 수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메르코수르 주요국들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는 수산물의 무역 통제를 관장하는 규칙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 아르헨티나 농림축산수산부는 결의안 119/2025를 통해 2004~2011년 ONCCA가 제정한 수산물 거래·운송·문서화 관련 7개 주요 규정을 폐지했음. 이는 법령 70/2023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조치로, 로밍 등록, 문서화 의무, 운전자 등록 요건 등 현재의 디지털 행정 체계와 맞지 않는 절차들을 제거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궁극적으로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임. ○ 오징어: 북파타고니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역사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아르헨티나 오징어 시즌은 최근 17년 중 최고 수준인 약 204,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 증가했음. 북부 파타고니아-부에노스아이레스 재고(SBNP) 지역의 자원이 지난 28년간 가장 풍부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지거선단 78척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 선박이었음. 북위 44도 기준 남북 해역 모두에서 고른 어획이 이뤄졌고,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선박의 성과가 두드러졌음. 					

전문가들은 2024년 번식기의 이상적인 해양 환경과 높은 알 부화율, 유충 생존율이 이번 품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노르웨이와 중국 함대가 남극 크릴새우를 황폐화시키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극 크릴새우 산업은 노르웨이와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이해 관계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첨단 선박과 해상 가공 시스템을 통해 공해에서 대량 어획이 이뤄지고 있음. 2023년 기준 세계 크릴 어획량의 67%는 노르웨이, 17%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중국은 대형 선박 확충을 통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EEZ 인근의 무규제 환적·보급 활동이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CCAMLR는 어획량 제한과 구역별 규제를 추진 중이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보호 조치가 무산되고 있음. 반면 노르웨이는 보존 조치를 일부 지지하면서도 산업 확대에 참여하고 있음. 크릴 산업은 기능성 식품, 사료를 넘어 글로벌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비용이 커지며, 규제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와 자원 중심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작성자

이상우

8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08-12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12.	EPSOL YPF (국영기업)	USD 1.14/Liters	MGO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회사	지원(협의 내용)		
2025. 8. 4./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표창장 수여식 및 아그네스 원양선사 임원분들과 오찬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홍어 등 연골어류에 대한 어획량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전선 합동기술위원회(CTMFM)는 결의안 No.8/2025를 통해 리오데라 플라타와 해양 전선 지역의 가오리 어획량을 조정하기로 함. 상반기 할당량이 소진되지 않아 남은 1,161톤(해안 가오리)과 2,273톤(고고도 가오리)을 하반기 할당량에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7~12월 기간 동안 최대 2,411톤의 해안 가오리와 3,773톤의 바다 가오리 어획이 가능함. -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공유하는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잉여 할당량 이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어업 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p>○ INDEC에 따르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능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의 임금은 2025년 들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구매력이 개선되었지만, 외부 수익성 부족이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음. 5월 기준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5.7%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은 1.5%로 둔화되며 실질 소득이 회복되었음.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상업·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1300페소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산업의 달러 비용은 여전히 상승 중임. 여기에 높은 금리와 금융 시스템의 공공 자금 조달 편중, 지방·국가 차원의 세금 부담이 민간 부문 성장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실질 소득 개선과 동시에 수출 경쟁력, 외환 창출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와 생산성 둔화가 고용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큼. <p>○ 티에라 델 푸에고는 스페인, 한국, 중국에 말비나스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에라 델 푸에고, 남극 대륙 및 남대서양 제도 정부는 스페인·한국·중국 대사관에 공식 서신을 보내, 말비나스·사우스 조지아·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인근 12해리 이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선박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음. 주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불법일 뿐 아니라 국가 어류 자원에 					

피해를 주고, 남대서양에서의 영국 점령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음.

- 말비나스 영국 정부가 다양한 국적 선박에 어업 면허를 부여하는 관행을 아르헨티나 측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로 거부하며, 최근 아르헨티나 해군청과의 협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추적 기능을 강화했음. 이에 따라 푸에지 당국은 무허가 어업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보호를 추진할 방침임.

○ 포클랜드 제도: 3년 연속 위험에 처한 롤리고 오징어의 겨울 시즌

- 포클랜드 제도의 롤리고 오징어 겨울 어업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8월 7일부터 48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3년 연속 같은 사유로 시즌이 중단되었음. 당국은 시즌 초 추정치 29,735톤에서 점차 14,722톤(최저 신뢰치 6,539톤)까지 감소한 바이오매스 수준을 근거로 보존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조치는 오징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제도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주며, 향후 과학 조사와 재평가를 거쳐 시즌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현재 Pescapuerta, Pereira 등 스페인계 기업을 포함한 16척의 선박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계는 수산부의 다음 발표를 주시하고 있음

○ 페루, 멸치 자원 보호 위해 2025년 첫 어획 시즌 조기 종료

- 페루 정부는 어린 개체의 비율 증가로 멸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자, 중북부 지역의 2025년 첫 멸치 어획 시즌을 7월 24일 조기 종료함. 이 조치는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번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히 시행되었음.
- 당초 300만 톤의 총 허용 어획량(TAC)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어획량은 246만 톤(목표의 81.9%)에 그쳤음. 이는 세계 최대 멸치 어업이자 글로벌 어분·어유 산업의 핵심인 페루 어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관리가 장기적인 자원 보존의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했음.

○ 페루, 대왕오징어 남획 방지 위해 6월 30일부터 기술적 금지 조치 시행

- 페루 정부는 2023~2024년 엘니뇨 영향과 빠른 남획으로 인해 대왕오징어(*Dosidicus gigas*)에 대해 6월 30일부터 기술적 금지 조치를 도입했음. 상반기에만 42만 톤이 잡히면서 자원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자이언트 오징어 작전 III' 연구 캠페인을 실시해 페루 전 해안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어민 참여에 기반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작성자

이상우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09-10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9.	EPSOL YPF (국영기업)	1.16 USD/L	MGO	환율 8% 상승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아르헨티나, 불법, 미신고, 무규제 어업(IUU) 반대의 날 2025년 9월 3일 행사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는 9월 3~5일 산마르틴 궁전과 수산부 본부에서 불법·미보고·무규제(IUU) 어업 반대 국제회의를 열어 해양 자원 지속 가능성과 남대서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 전략 강화를 추진함. - 취임식은 파올라 디 키아로 장관과 로페스 카소를라 차관이 주재했으며, 외국 선단 감시를 위해 실시간 제어 도구·EEZ 순찰·위성 기술이 소개됨. 칠레·페루·CALAMASUR의 지역 경험 공유와 함께 IUU 어업 대응 국가 행동계획 업데이트가 발표될 예정이며, WTO 어업 보조금 협정 비준과 맞물려 불법 조업 보조금 금지와 마일 201 활동 억제 등 해양 보호 의지를 강조함. <p>○ 마르델플라타 어업 위기: 대규모 해고 사례 속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의 중견 수산기업 Ostramar는 국제 대구 필레 시장 가격 하락과 경영난 속에 등록 필렛 노동자 50명을 해고했음. 이들은 3개월 이상 업무와 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뒤 해고됐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해 최대 18회 분할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불안정 근무 형태로 복직을 제안함. 이는 지역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노동 위기와 맞물려 Apolo Fish, Gaveteco 등과 유사한 대규모 해고·퇴직금 축소·비공식 고용 전환이 반복되는 상황임. <p>○ 페루, 오늘 대왕오징어 낚시 재개 : 2025년 8월 2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는 2025년 오징어 어업을 504,000톤 할당량과 2단계 어획 방식으로 재개하며 지속 가능성과 어업 통제를 강화함. 대왕오징어는 2024년 상반기에만 421,600톤이 잡혀 전년 대비 200% 증가해 6월 조기 중단됐으나, 과학 조사 결과 자원이 여전히 건강한 수준으로 확인돼 어획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1단계는 8월 25일~10월 31일 장인 선박 39,984톤, 2단계는 11월 1일~12월 31일 42,432톤이 허용됨. 					
작성자		이상우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10-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8.	EPSOL YPF (국영기업)	1.17 USD/L	MGO	9월부터 7%의 환률 상승으로 10월 중 3.3% 유류가격 인상 예고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어업 부문 수출 관세를 면제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수산업회의소(CAIPA)가 수산부 차관 후안 안토니오 로페스 카소를라에게 10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수출 관세 유예에 어업 부문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음. CAIPA에 따르면, 초기 조치는 곡물과 유지종자에 적용됐고 이후 쇠고기와 양봉 제품으로 확대됐지만, 해양 원산지 제품은 제외돼 있음. 국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함. - 수출관세 유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부의 조치임. CAIPA는 파타고니아와 마르델플라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업 부문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함. 최종 결정은 수산부 차관과 행정부에 달려 있음. <p>○ Malvinas, 오징어 어업 폐쇄: 18,000톤 및 조기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비나스(포클랜드) 제도에서 롤리고 오징어 어업이 18,000톤의 추정 어획량을 기록한 후 어젯밤 조기 폐쇄됨. 이 어업에 참여한 갈리시아 선단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어장으로 이동해야 함. 시즌 초반 낮은 바이오매스와 작은 표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폐쇄 가능성이 예견됐으며, 활동 유지 의무로 일부 자신감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조기 어장 비움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음. - 총 16척의 선박이 Pescapuerta, Pereira, Wofco, Copemar, Chymar 등 그룹과 연결되어 참여했으며, 51%는 말비나스 제도 점령 정부와의 합작 투자로 갈리시아 자본이 강하게 참여함. 선박들은 낮은 어획량과 증가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는 운영 수익성 저하를 초래함. - 이번 조기 폐쇄는 자원 지속 가능성, 기업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 EEA 외 남대서양 갈리시아 어업에 미치는 경제적 위험 등 여러 우려를 남김. 최근 몇 년 롤리고 어업은 어획량 급감 등 심각한 역경을 겪었으며, 이는 즉각적 수익성뿐 아니라 해안 지역 사회와 해양 경제 전반의 구조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함. <p>○ 공해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자원의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JF는 아르헨티나 오징어가 공해(201해리 인접 수역)에서 과잉 착취와 규제 공백, 심각한 노동 학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대만·한국 선박이 집중된 대규모 지거 어업으로 조업 노력과 시간이 급증해 중 붕괴 위험과 생태계 교란이 커지고 있고, 강제노동·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된 만큼 공해 집단 거버넌스 구축과 국가 간 과학 협력, 엄격한 노동·조업 통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함 					

- 마르델플라타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30만톤 하역.
 - 1월~9월 사이 현지 항구 터미널의 오징어 수확량은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매우 좋았음. 일반 배출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650,000톤으로 1% 증가함.
 - 9월 30일까지 지역 해상 터미널에서 신고된 배출량은 약 30만 톤으로, 수산부 차관 통계에 따르면 299,962톤이 어획되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함.
 - 2024년 마르델플라타가 초과 보유한 오징어 20,000톤은 후브시 헤이크 상륙 감소분 8%를 완화함. 1월~9월 함대 하역량은 전년 133,000톤 대비 121,000톤임.

작성자	이상우
-----	-----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11-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7.	EPSOL YPF (국영기업)	1.19 USD/L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2025년 수산물 수출 동향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수출 증가율은 오징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음. 이는 대구와 특히 새우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이를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1월부터 9월까지 홍새우 누적 수출량은 41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4천 톤 증가해 0.6%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오징어 수출량은 19만 톤으로 48% 늘어나고 평균 가격도 11.5% 상승해 톤당 2,835달러를 기록했음. 반면 대구 필레는 6.6% 감소했으나 스페인 시장의 8% 상승 덕에 평균 가격이 소폭 오른 3,222달러를 유지했음. 통새우는 2024년 대비 53% 급감하여 34,000톤 미만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 한편 메로(투스피쉬)와 킹크랩은 판매량이 28% 증가하고 단가가 15.4% 상승해 총수익이 47.3% 늘어나는 등 고가 어종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보였음. <p>○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화물사 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화물량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마르델플라타 항구에서의 중간 기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 마르델플라타와 브라질 산토스 항을 연결하는 '아틀라스 서비스'는 약 1년 반 전 어업·농공업·공산품 수출을 위한 안정적 물류 통로로 출범했으나, 창고 완공 지연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했음. - 이에 현지 어업 부문은 감자 생산시설을 포함한 수출 물량을 확대해 CMA의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 실제 화물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면서 운송비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CMA CGM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마르델플라타 항 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했음. <p>○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공동수역 내 연골어 보존을 위한 어업 제한 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 어업 구역에서 상어·가오리 등 연골 어종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CTMFM은 결의안 No.12/2025를 승인해, 과학적 권고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정 해역 내 바닥 트롤 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양국 간 공동 관리와 과학협력을 제도화했다. 					
작성자		이상우			

12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아르헨티나	보고일	2025-12-07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7.	EPSOL YPF (국영기업)	1.22 USD/L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물결: 대륙붕에서 불법 지도 작성 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오징어 시즌을 앞두고 EEZ 경계선인 '마일 201'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동 중인 외국 선박 148척을 적발하고, 향후 500척 이상이 추가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오징어(Illex argentinus)는 외화 수입 측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어종으로, 매년 11월부터 6월까지 동아시아(중국·한국·대만) 국적의 대규모 원양 선단이 수천 마일을 이동해 해당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업함. 해안경비대는 해상·공중 순찰과 자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감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 국적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대륙붕 및 남극 해역에서 격자형 항해를 하며 불법적 지도 제작 및 의심 활동을 반복해 온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 중국 국적 어선 루칭위안위 205호가 아르헨티나 대륙붕과 EEZ 경계 인근에서 해저 탐사로 추정되는 격자형 항해를 반복하며 비우호적 행위 논란이 발생함. 해당 해역은 남대서양의 핵심 어장 '블루홀'이 위치한 전략적 구역으로, 동일 선단의 불법 조업·멸종위기종 포획 등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외교적 대응과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p>○ CAPEAR ALFA(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과 개혁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델플라타 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높은 세금·수수료·노동비·물류비 등 과도한 비용 구조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세제·노동·규제 개혁과 지원 대책을 재차 요청함. 또한 수출 관세 인하, 기술 도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효과를 평가할 기술 위원회 설립을 요구했으며, 향후 노동 및 규제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경우 수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p>○ 2026년 오징어 시즌 개막일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수산위원회(CFP)는 INIDEP의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어선주협회(CAPA)의 요청에 따라 2026년 오징어(일렉스) 시즌 조기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단계적으로 1월 2일(남위 49~52도), 1월 7일(남위 44도 이남, 일정 조건 충족 선박), 1월 12일(잔여 함대)부터 순차 조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음. - 대상 자원은 1월 중순 이전 산란을 마치는 개체로, SSP 개체군과의 중첩이 적어 조기 어획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판단에 근거함. 한편 남서대서양 201마일 EEZ 경계 인근에는 매년 대규모 외국 오징어 선단이 집결하며, 특히 2~5월 집중 어획 시기에는 국제해역에서 통제 없이 대규모 조업이 이루어져 불법·무규제 조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작성자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박상천

담당지역 : 인도네시아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인도네시아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5.10.15.	'27.10.14.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RAJAWALI LBS TRACKING SYSTEM 대표이사('10~'13) · 현재 현대중공업 산업차량 부문 딜러 PT. HD FORKLIFT 대표 · PT. NANOOM 컨설팅/ 무역, 유통(수산물)회사 임원('19~현재) · 현대그룹 현대무팩스 인도네시아 딜러 임명('20~현재)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 7.	· 섬 판매관련 인니 해양수산부 공식입장 발표 등 2건
8. 5.	·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국제표준으로 확대 등 2건
9. 5.	· 한-인니간 해양분야 장학사업 실시 등 2건
10. 8.	· 한국 기술 지원받아 해양 모니터링 공간관리 고도화 등 2건
11. 4.	· 인니 해수부,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 인증기관 공식 인정 등 2건
12. 5.	· 소규모 어업 혁신 추진위해 장기플랜 발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07-07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7.	Pertamina	0.99 USD/L		디젤유 (MDF)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섬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니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이나 소도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온라인상 불법 섬 매매 광고에 대해 해양수산부(KKP)와 정보통신디지털부(Komdigi)가 협력해 대응 중임. 섬은 매매 대상이 아니며, 일정 조건 아래 사용·투자만 가능하고, 최소 30%는 공공 목적 등으로 보존돼야 함. - 정부는 소도서 정보 공개, 광고 차단,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생태관광·해양보전 등 친 환경적이고 공공성 있는 활용만 허용함. 이는 2024년 제정된 장관령과 연계되어,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중시한 정책 방향을 따름. <p>○ 인도네시아, 산호초 보호 위해 세계 최초의 성과채권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산호초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세계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성과채권(Indonesia Coral Reef Bond)’을 도입했음. 이는 민간 자금을 유치해 산호초 회복, 지속 가능한 어업, 보호 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임. - 총 190만 헥타르의 3개 핵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IUCN 기준에 부합하는 생물량 증대 등 실질적 보전을 목표로 함. 이는 해양 번영 프로젝트(LAUTRA)와 연계되며, 세계 은행·IUCN 등과 협력해 UN 해양회의(UNOC 3)에서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p>○ 인니 해양수산부, 석유·가스 산업 위한 해양공간 허가 절차 신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해양공간계획총국을 통해 석유·가스 산업 등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공간사용 적합성 승인(KKPRL) 절차를 신속화하고 있음.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간소화 정책(Cipta Kerja 법)의 일환으로, 2021~2025년 동안 KKPRL 승인 121건이 발급되었음. - 해양은 다층적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며, 특정 구역이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함. 정부는 국가해양공간계획(RTRWN)을 재검토해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20년 장기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인허가 기준으로 반영할 방침임. 					
작성자		박상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08-05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5.	Pertamina	0.99 USD/L	디젤유 (MDF)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바다거북과 고래류 보호 위해 다자간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바다거북과 고래류 등 보호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2025-2029 국가행동계획(RAN)을 추진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최근 발리에서 열린 공개 협의회에는 KKP, WWF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알람 보전재단을 비롯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 이번 회의에서는 ▲바다거북 보전 거점 설립, ▲좌초 해양포유류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연안·해상 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 등을 주요 전략으로 논의하였으며, 실행 목표와 지표, 우선 지역, 책임 주체를 정리한 매트릭스가 공유되었음. 참석자들은 조속한 계획 완성과 현장 중심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번 계획은 향후 보호종의 통합적·지속 가능한 보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p>○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스텔리나’ 국제 표준으로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GDST)와 협력해 국가 수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스텔리나(Stelina)**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을 밝힘. 스텔리나는 QR코드를 통해 수산물이 양식·어획부터 유통, 소비자 전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는 인도네시아 수산물이 불법 어업이 아닌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쉽게 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과 국제 신뢰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실제로 2024년 인도네시아는 새우(16억8천만 달러, 전체 수산 수출의 28.2%)와 참치류(10억3천만 달러, 17.4%)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록했으며, 미국·일본·유럽·아세안·중동이 주요 시장임. 업계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새우·참치 등 전략 수산물의 수출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 기대를 표함. <p>○ 인도네시아정부, SEAFDEC와 협력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수산개발센터 내륙어업자원관리개발부(SEAFDEC/IFRDMD)와 협력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7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생 생태계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전략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발전”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일본-아세안 통합기금(JAIF) 지원으로 동남아와 일본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음. 					

- 인도네시아는 이미 ▲‘바다사랑의 달’ 쓰레기 수거 캠페인, ▲방치된 어구(ADLFG) 처리, ▲어항 내 쓰레기 관리, ▲정책 집행 강화, ▲포용적 환경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시행 중임. 이번 워크숍은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음.

작성자

박상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09-05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5.	Pertamina	0.99 USD/L		디젤유 (MDF)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한국-인도네시아 간 해양분야 장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및 한-인도네시아 해양기술협력연구센터(MTCRC)와 함께 KIOTEC-CEA 장학사업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해양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UN '지속가능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의 일환으로 석사 장학금, 전문 교육·훈련, 공동 연구, 연구자 교류 등을 통해 현재까지 6개 대학에서 40명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석사 장학생 논문 세미나에서는 12명의 학생이 연안 생태계, 수산 기술, 응용 해양학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본 사업이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에서 새 프로그램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며 북자카르타 까말무아라에서 맹그로브 숲 개발 사업을 시작함. 이 사업은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 ▲해양 생태계 복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 맹그로브 구역을 복원·보전·교육·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202종의 토종 맹그로브 식재 및 첨단 양식 시설 구축을 추진함. - 이번 행사는 700여 명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맹그로브 숲이 해안 방어와 블루카본 저장의 핵심 자원임을 강조함. 정부는 이를 통해 쓰레기 관리, 환경 보전, 지역 경제 발전을 아우르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 실현 사례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깨끗한 바다와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p>○ 바다거북알 밀수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서칼리만탄 삼바스군 카펫 썬파록 항구에서 적발된 바다거북 알 5,400개 밀수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월 12일 용의자 MU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함. MU는 7월 12일 합동 작전 중 체포됐으며 공범은 군사경찰 관할로 조사 중임. 제출된 증거는 휴대전화 2대, 거북알 150개, 범행 영상 USB 등이 포함됨. 정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종 보전과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강조하며, 국경 지역 감시 강화를 지시함. 					
작성자		박상천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10-08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8.	Pertamina	0.99 USD/L		디젤유 (MDF)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한국 기술 협력 받아 해양 모니터링 공간 관리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자원의 실시간 관리와 활용 강화를 위해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OMS)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해양공간관리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오션과 연계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IT 기업 PT. IGS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기술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임. 한국은 KIOST가 개발한 KOOS를 이미 운영 중임. <p>○ 사업자 편의를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 허가제도 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종사자의 허가 취득을 간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 허가제 시행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5년 제28호 정부령에 근거하여 기존 제도를 대체할 예정임. 새로운 제도는 SPDI, SKP, HACCP 인증 등을 포함하고, KBLI 기준에 따른 업종별 세부 허가 요건을 규정하여 수산업 종사자 보호, 소득 증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도모함. 해양수산부는 직접 허가를 담당하며, 제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일자리 창출에 있음. <p>○ 인도네시아-한국, 블루이코노미 실현위한 스마트 캠퍼스 공동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한국 Vogo 그룹과 협력하여 해양·수산 스마트 캠퍼스 및 글로벌 리더 인재개발 지원센터(GLTDSC)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블루 이코노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스마트 캠퍼스에는 학사·행정 시스템 통합, e-러닝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IoT 등 지능형 기술이 도입되며, GLTDSC는 대학생, 교수진,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임. 본 협력은 9월 9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작성자		박상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11-04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5.	Pertamina	1.05 USD/L		디젤유 (MDF)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인도네시아 해수부,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 인증기관(CE) 공식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을 위한 공식 인증기관(Certifying Entity, CE)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바(Java)와 람퐁(Lampung)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새우는 KKP가 발급한 품질인증서(Quality Certificate)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게 되었음.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경보 제99-52호에 따른 것으로, 원산국 공인기관이 발급한 ‘세슘-137 오염 없음(No Contamination of Cesium-137)’ 인증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임. - 해당 조치는 수입 제한이나 금지가 아닌 추가 인증 요건에 해당하며, 자바·람퐁 지역 외에서 생산된 새우의 대미 수출은 기존 절차가 그대로 유지됨. 현재 KKP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세슘-137 무오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증 과정에는 원자력감독청(BAPETEN)과 국가연구혁신청(BRIN)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후속 보도에 따르면 KKP는 세슘-137 불검출 인증을 받은 새우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2025년 10월 31일 자카르타 탄중프리옥 항만에서 미국 FDA 수입경보 #99-52 시행 첫날에 맞춰 이루어졌음. 해당 물량은 뉴욕과 LA로 선적된 후, 다음 날 마이애미와 잭슨빌로도 추가 선적되었으며, 자바·람퐁 지역 새우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이 공식 인증되었음. <p>○ 해양·육지 공간 통합 위한 ‘워터프런트 시티’ 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과 육지의 공간계획을 통합하는 ‘원스페이셜플래닝(One Spatial Planning)’ 정책을 추진해 공간 갈등과 정책 중복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음. 이와 함께 사방, 바닷, 비뚱, 모로타이, 마룬다, 세마랑, 수라바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워터프런트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해양수산부 창립 26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 - 국가 해양공간계획은 국가 지역공간계획(RTRWN)과 통합 중이며, 2025년 12월 공식 제정이 예정되어 있음.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해양·연안 공간계획을 완료했으며, 이번 통합은 블루이코노미 실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제도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p>○ 서파푸아 소롱 지역의 해양공간 불법이용 중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파푸아 소롱 지역 사오카(Saoka)에서 ‘해양공간 이용활동 적합성 승인서(PKKPRL)’ 전용부두 지정 문서 없이 안산암 등 C형 광물 채굴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공간을 이용한 기업들의 무허가 활동을 적발하고, 10월 30일 현장 점검을 통해 전용부두 운영을 일시 중단했음. 해양·도서 특별경찰과 소롱 해양 자원관리국의 조사 결과 항공사진·위성영상으로 무허가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인허가 미비 해양공간 이용에 대해 행정 제재를 경고하고, 이번 조치가 해양환경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관 지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음. 					
작성자		박상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5-12-05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2. 4.	Pertamina	1.05 USD/L	디젤유 (MDF)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Mackerel Tuna		2.3 USD/kg			
Skipjack Tuna		1.9 USD/kg			
Milkfish		2.06 USD/kg			
Frozen Squid for export		6.03 USD/kg			
Frozen Prawn for export		7.28 USD/kg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인도네시아정부, 블루카본과 국제 협력으로 기후 해결에 앞장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COP30 회의에서 맹그로브와 잘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 해양관리국 코스와라 국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 기반 기후해결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캐나다·영국·웨일즈 인터내셔널·GGGI 등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음. 또한 COP26 이후 블루카본 생태계가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뿐 아니라 연안 주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는 제2차 국가결정기여(SNDC)에 블루카본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국가 차원의 블루카본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향후 블루카본 크레딧과 블루본드 등 새로운 자원 조달 수단 도입과 함께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p>○ 인도네시아 정부, 소규모 어업 혁신추진위해 장기플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 어업 종사 어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어업관리 국가행동계획(RAN-PPSK)을 공식 발표했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체 어획량의 95%가 소규모 어업에서 발생할 만큼 해당 부문이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장비·시설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에 정부는 FAO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보장 강화, 시장 접근성 확대, 어민의 장기적 경제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장기계획을 수립했음. - 또한 측정어업 등 5대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IPMAPHERI 출범: 인도네시아 수산물 품질·시장 경쟁력 강화 시동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11월 30일 수산물 품질관리·시장분석 전문가 협회(IPMAPHERI)를 공식 출범시켜, 전문가 역량 강화와 수산업체 지원, 국민 대상 수산물 영양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음. IPMAPHERI는 수산식품 품질·안전성 강화, 가공·유통 부문 고도화와 부가가치 확대, 국내외 시장 분석, 국가 영양급식 프로그램(MBG)용 안전한 수산물 공급,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확산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협회장 압둘 라흐만(Aab) 주도로 현재 1,050명의 품질 전문가와 478명의 시장분석가가 등록돼 향후 체계적인 협력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 무허가 해양사업 적발 시, 즉시 봉인조치 경고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공간 이용 허가(KKPRL) 제도를 기반으로 해양 공사·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북수마트라 델리 세르당 지역에서 약 51.6헥타르 해역에 대해 허가 없이 구조물 설치와 매립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적발해 현장을 봉인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했음. 정부는 KKPRL이 단순 규제가 아닌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하며, 해당 업체에 공사 중단, 투자 규모에 따른 행정벌 부과, 향후 허가 절차 배제 등의 제재를 적용할 방침임.

작성자	박상천
-----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이윤홍

담당지역 : 가 나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가나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4.6.1.	'26.5.31.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사, 오양수산, SK해운 근무 · 재가나 한인회 체육이사 임원('09~) · 재가나 한인 골프동우회 회장('10~) · 現 SSK Marine Co.,Ltd 사장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 월	· 한국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6.30.	· 수산위원회, 금어기 카누어업 면제효과 데이터분석
7.3.	· 가나 의회, '25년 어업 및 양식 법안 통과 등 2건
8.31.	· KMI CAPFISH summer academy 가나 개최 등 2건
9.30.	· SDG자문단 가나 지속가능한 해양계획 워크숍 개최 등 2건
10.31.	· 가나 소규모 어업 보호 위한 수산법 개정 등 2건
11.30.	· 가나 대통령, 수산업 보호 위한 대책 발표

7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06-3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5/	선박수리	Tema	체항중
Afko	Afko 808	2025-03-15/	신규선박 입어권 수속중	Tema	체항중
Panofi	Master	2025-06-05/ 2025-06-09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6-09/ 2025-06-12	전재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06-01/ 2025-06-05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6-07/ 2025-06-1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6-01/ 2025-06-0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6-01/ 2025-06-05	전재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6-14/ 2025-06-17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6-20/ 2025-06-22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6-27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6-30/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6-27/	하역	Tema	하역중
Rico	Rico Siete	2025-06-29/	하역	Abidj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5-28/ 2025-06-02	하역	Abidjan	조업중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6.30	GHANA OIL(GOIL)	0.83 USD/L	MGO	양상급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 / 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USD 1,760 / Mt	
Skip jack tuna	3.5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3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150 /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한국대사관, 한국 교민들과 Krowor 해변 청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 아크라 인근 Krowor 해변에서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기념해 대규모 해변 정화 활동이 열렸음. 본 행사는 NGO 플라스틱 펀치가 주최하고, 주가나 한국대사관과 한국상공인공동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KOICA, KOFIH, EXIM Bank, 그리고 여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약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함. 이는 한국 기업·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박경식 대사는 이 활동이 한-가나 간 해양 환경 보호의 공동 책임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문화적·환경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플라스틱 펀치 측은 수거 데이터를 통해 오염원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모두가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음. <p>○ 어업위원회, 금어기 카누어업 면제 효과 데이터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 어업위원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카누 어업인에 대한 7월 금어기를 면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병행하기로 함. 해양국장 Esi Bordah Quason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원 변화와 어획량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힘. 가나 어업위원회는 금어기 이전에도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하며, 자원 보호를 위해 모라토리엄, 어선 크기 제한 등 추가 보존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란장 보호의 필요성과 생계 대안 부족으로 금어기 조업 중단이 어려운 어업인의 현실을 강조하며, 양식업 전환도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설명함. <p>○ BSM, RMU에 해양 교육 센터 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른하르트 솔트 선박 관리국(BSM)은 가나 아크라의 지역 해양대학교(RMU)에 ‘BSM 해양 훈련 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지역 및 인근 국가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함. 이 센터는 교실, 작업장, 계류장, 숙소 등 첨단 시설을 갖췄으며, RMU 총장은 2012년 이후 BSM이 600명 이상의 사관생도를 선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협력을 인재 투자로 평가함. - 개소식에는 GMA, RMU, BSM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BSM 회장은 자격 있는 트레이너 채용과 취업 연계를 약속함. GMA 사무총장은 이 센터를 다양성과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가나의 해양 리더십 강화를 촉구함. RMU 부총장 대행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할 호스텔 건립에 대한 BSM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학계와 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작성자	이윤홍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07-3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5/	수리	Tema	체항수리중
Afko	Afko 808	2025-03-15/ 2025-07-31	신규어선 도입 및 등록 수속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07-29/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Commander	2025-07-25/ 2025-07-28	하역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07-16/ 2025-07-2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7-30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Path finder	2025-07-16/ 2025-07-19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7-14/ 2025-07-17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7-15/ 2025-07-18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6-20/ 2025-06-22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7-31/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7-21/ 2025-07-26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5-07-18/ 2025-07-22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07-29/	수리	Abidjan	체항수리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8-25/	수리	Abidjan	체항수리중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31.	GOIL	0.88 USD/L		MGO	양상급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 / 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USD 1,76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5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5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200 /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가나 의회, 2025년 어업 및 양식 법안 통과
 - 가나는 어업 및 양식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어업 및 양식 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기존 2002년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EU 및 미국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통령 서명 후 어업 위원회가 신설되어 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주도할 예정임. 이 개정은 EU의 수출 제재를 피하고, 어업 부문의 경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됨.
- Blekusu 해안선 확보 - Mahama 대통령, 보호 프로젝트 시작
 - 가나 Mahama 대통령은 Volta 지역 남 Ketu 시에서 Blekusu 해안 보호 프로젝트 2단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 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와 해일 침식으로부터 해안 지역 사회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탄력적 대응책으로, Blekusu, Agavedzi, Salakope 등 5개 지역에 8km 해안선 보호를 위한 37개 방파제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임.
 - 대통령은 지역 생태 보호를 위한 현대식 수산시장, 냉장·가공·위생 시설 등 사회기반 인프라와의 통합 계획도 발표했으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함.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시작된 1단계의 연장선으로, 침식 피해에 대응하는 긴급 조치이자 국가 개발의 일환임.
- 가나, 새로운 유엔 해양 및 해양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됨
 - 가나는 UN 글로벌 콤팩트가 출범한 해양 보존 및 청정 에너지 촉진 프로그램인 '오션 센터' 이니셔티브의 선도국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재생에너지 전환과 해양 안전·보존을 위한 지역 주도형 협력 플랫폼임.
 - UN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접근성 개선, 글로벌 금융 개혁 등을 강조하며 정의롭고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음.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능력의 1.5%에 불과해,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지적함.
 - 가나는 해안선, 블루이코노미 잠재력, 해양 역량을 바탕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력·풍력·태양광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정 에너지 확산, 해양 감시 강화, 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해당 플랫폼은 정부·지역사회·민간·학계 간 연계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해양 개발 목표를 통합할 예정임.

작성자	이윤홍
-----	-----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08-31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8-26/	하역 및 기관점검	Tema	수리중
Afko	Afko 808	2025-08-05/	하역 및 기관점검 수리	Tema	수리중
Panofi	Master	2025-08-21/ 2025-08-2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8-20/ 2025-08-2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08-29/ 2025-08-3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3-15/ 2025-05-0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8-27/ 2025-08-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8-25/ 2025-08-29	하역 및 점검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8-13/ 2025-08-15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8-06/ 2025-08-1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5-08-21/ 2025-08-27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ueen	2025-08-28/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8-15 / 2025-08-19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08-02 / 2025-08-05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8-28/	하역	Abijdan	하역중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31.	GHANA OIL(GOIL)	0.86 USD/L	MGO	양상급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1,760	
Skip jack tuna	3.5kg up	1,550	
Skip jack tuna	1.8kg up	1,500	
Skip jack tuna	1.8kg under	1,350	
Skip jack tuna	1.5kg under	1,200	

대외 활동 내역(업계 및 정부 지원, 컨설팅, 해당국 정부 협의) * 상세사항 기재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 8. 18./ Accra Alice Hotel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CAPFISH summer academy 개막식 참석
2025. 8. 29.		Tema 부두, 훈증 단지 건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교류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가나 카누 어업인 전용 어업해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어업 법안
 - 가나는 대통령 승인을 앞둔 2025년 새로운 수산양식법을 통해 카누 어업 전용 구역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까지 확대하여 불법적으로 연안에 침범하는 산업용 트롤선에 대응할 계획이다. 법안은 불법·규제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과 소규모 어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노르웨이 정부 지원으로 열린 중앙 지역 어류 박람회에서는 어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과 품질 관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증된 85개 생선 훈증 가공 시설을 활용한 무료 훈련이 시작되었다. 행사에서는 어업인들이 시장 접근과 생계 향상을 위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강조되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주최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행사 가나에서 개최
 -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8.18~29)”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수산부 지원 아래 세계해사대학(WMU)과 공동 주최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5개년 다자성 ODA 사업으로, 권역별 맞춤형 교육, 교재·성과보고서 발간 등을 포함해 약 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 이번 가나 아카데미에는 가나, 세네갈, 탄자니아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 공무원과 전문가 약 40명이 참여했으며, 소규모 어업·해상 범죄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막식

에는 박경식 주가나 한국대사가 참석해 한국의 수산업 경험 공유와 불법어업 근절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가나 Tema 어항을 방문해 금어기 종료 후 출어 준비 중인 중국 트롤선과 참치 선망선 하역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현장 이해를 높였다.

- KMI 수산 ODA 지원 사업으로 Tema 의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현대적인 생선 훈연장 단지 건설 착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한국 수산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가나 Tema 카누 선착장 인근 350평 부지에 현대식 생선 훈연장과 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나 수산위원회 및 수산양식부와 협력하여 2023~2026년, 약 4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여성 어업인의 가공·유통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 식량안보 기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내용은 △훈연·수로·냉장고 등 가공·보관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여성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다. 현재까지 기초선 조사, 현지 실태 조사, 정책결정자 연수,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향후 개보수 시공과 전통기술을 접목한 아프리카 훈연가공시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공·유통 역량 강화와 어획 손실 감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와 가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향한다.

작성자	이윤홍
-----	-----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09-3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8-26/ 2025-09-10	하역 및 선박수리	Tema	조업중
Afko	Afko 808	2025-08-05/ 2025-09-19	선박등록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09-11/ 2025-09-14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9-11/ 2025-09-19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Queen	2025-09-24/ 2025-09-19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9-09/ 2025-09-1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9-22/ 2025-09-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9-15/ 2025-09-19	전재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9-04/ 2025-09-09	하역	Abidjan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9-20/ 2025-10-24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9-25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9-18/ 2025-09-23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9-18/ 2025-10-23	하역	Tema	하역중
Rico	Rico Siete	2025-09-10/ 2025-09-18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0-27	하역	Abidjan	하역중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9.30.	GHANA OIL(GOIL)	0.83 USD/L	MGO	양상급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0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60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00 /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150 / Mt	
대외 활동 내역(업계 및 정부 지원, 컨설팅, 해당국 정부 협의) * 상세사항 기재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기 타
2025. 09. 05/ 수도 Accra 한국 대사 관저	가나 수산장관 Emilia Arthur	한국의 날 행사 참석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SDG 자문단 및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 가나 지속가능한 해양계획(SOP) 검증 워크숍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 SDG 자문단과 NDPC가 「지속가능한 해양계획(SOP)」 초안 검증 워크숍을 개최함. 이번 계획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블루 이코노미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문서로, 해양 자산·건강·안보를 중심으로 과학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했음. - 가나는 불법 어업,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해양 자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해양 공간 30%, 2050년까지 100%를 지속가능 관리 체계에 편입하기로 약속함. 전문가들은 SOP가 투자 지침, 기관 간 협력, 식량안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로드맵이 될 것으로 평가했음. - 이번 SOP는 가나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블루 이코노미 성장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p>○ IUF, 어업 부문 강화를 위한 ILO 협약 188 비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크라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산업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연대’ 회의에서는 IUF가 ILO 협약 제188호 비준을 촉구하며 글로벌 해산물 가치사슬 내 노동 착취 문제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함. 가나 GAWU는 수산업이 국민 단백질 섭취의 약 60%를 담당하고 25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핵심 산업임을 설명하는 한편, 어족 고갈, 열악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함. - 가나 정부는 「수산 및 양식업법(법률 제1146호)」과 Torkor 모델을 통해 아동노동 근절, 복지 향상, 자원관리 및 양식업 육성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음. 			

- 가나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와 가나국립양식협회, 「틸라피아·메기 금요일」 캠페인 출범
 - 가나 CSIR와 가나국립양식협회(NAA)는 아크라에서 「틸라피아·메기 금요일」 캠페인을 출범하여 국내산 어류 소비 확대, 양식어가 소득 증대, 출하가-소비자가 간 가격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본 캠페인은 틸라피아 소시지, 훈제 틸라피아, 어분, 건어포 등 가공제품 다양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며, 양식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임. 가나 정부는 소규모 양식어가의 기술·사료비·인허가 문제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류가 국민 동물성 단백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수산 양식법 2025」 제정을 통해 양식업을 수입 대체,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임.

작성자	이윤홍
-----	-----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10-31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10-17/	계류	Tema	계류중
Afko	Afko 808	2025-10-27/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Master	2025-10-16/ 2025-10-19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10-18/ 2025-10-2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09-24/ 2025-09-28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10-08/ 2025-10-1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9-22/ 2025-09-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10-23/ 2025-10-26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10-07/ 2025-10-10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0-23/ 2025-10-29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10-15/ 2025-10-26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10-29/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5-10-08/ 2025-10-12	계류	Tema	계류중
Rico	Rico Siete	2025-10-28/	하역	Abidjan	하역중
Dichaventure	Dicha Uno	2025-10-03/ 2025-10-17	신규 입어	Abidjan	조업중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31.	GHANA OIL(GOIL)	0.88 USD/L		MGO	양상급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0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60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4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350 / Mt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2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050 / 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US 미국 비자 정책 복원, 가나 선원들에게 숨통 — 해양청장
 - 가나 해사청(GMA) 청장 Ali Kamal Deen은 최근 복원된 미국 선원 비자 정책을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음. 그는 미국의 비자 제한이 가나 해운 산업을 거의 마비시킬 뻔했다며, 가나가 세계 선원 공급 상위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7월에 5년 복수비자에서 3개월 단수비자로 변경했으나, 최근 다시 복수비자로 복원함.
 - Kamal 청장은 또한 브라질의 선원 입국 카드 제도로 인해 가나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함. 브라질은 쿠폰 기반에서 칩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Dorcas Affo Toffey 교통부 차관은 가나 정부가 GMA를 전폭 지원하고, 미국·브라질의 비자 및 입국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 가나, 소규모 어업 보호 위한 획기적 수산법 제정
 - 가나 정부는 소규모 어업 생계 보호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산 및 양식법」을 제정하고, 연안배타구역(IEZ)을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해 산업어선 접근을 제한했으며, 산업어선에 EMS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했음.
 - 또한 수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EU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수출 규정 준수를 강화해 식량안보와 어민 보호를 도모했으나, 산업어선 비용 부담 증가와 단속 실효성, 미국 원조 중단에 따른 EMS 확산 지연 등으로 제도 이행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부 장관, Hen Mpoano 의 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포용적이고 성인지적인 협력 촉구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Emielia Arthur는 아크라에서 열린 헨 음포아노(Hen Mpoano)의 ‘성인지적 보전(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성인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새로운 협력 의지를 촉구했음.
 - Hans Wilsdorf 재단 지원으로 추진되는 GRC 프로젝트는 소형어업 공동관리, 지역 감시체계, 해양보호구역(MPA)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노르웨이 정부와 IUCN-RISE 챌린지 후원 아래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어업 거버넌스에 통합하고 있음. 행사에는 노르웨이 대사 John Mikal Kvistad와 Hen Mpoano 이사 Kofi Agbogah가 참석해 국제 협력과 여성 역량 강화 성과를 평가했으며, 이번 프로젝트 출범은 가나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블루이코노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작성자	이윤홍
-----	-----



보고구분	정기	국가	가나	보고일	2025-11-3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10-17/	계류	Tema	계류중
Afko	Afko 808	2025-11-01/ 2025-11-08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11-18/ 2025-11-2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11-13/ 2025-12-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11-05/ 2025-11-09	하역	Abijdan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11-19/ 2025-11-2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11-03/ 2025-11-0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10-23/ 2025-10-2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11-05/ 2025-11-09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0-23/ 2025-11-01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5-11-15/ 2025-11-2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ueen	2025-11-01/ 2025-11-05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11-03/ 2025-11-06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10-03/	하역	Tema	계류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1-24/	하역	Abijd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5-11-24/ 2025-11-28	하역	Abijdan	조업중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30.	GHANA OIL(GOIL)	0.85 USD/L	MGO	양상금유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 Kg Up	USD 1,850/MT	
Yellowfin tuna	10 Kg Under	USD 1,550/MT	
Skip jack tuna	3.4 Kg Up	USD 1,500/MT	
Skip jack tuna	1.8 Kg Up	USD 1,350/MT	
Skip jack tuna	1.5 Kg Up	USD 1,200/MT	
Skip jack tuna	1.5 Kg Under	USD 1,050/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대통령, 수산업 보호 위한 대책 발표

- 가나 대통령 마하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연안 소규모 어업 전용구역(IEZ)을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발표했음. 새로 제정된 「수산 및 양식업법 2025(Act 1146)」은 IUU 어업 처벌 강화와 공동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하며, 어민·어상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했음.
- 전국 어민·어상인 회의에서는 신법 이해, 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IUU 대응,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통합 등이 논의되었음. 정부는 케이프 쓰리 포인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승인하고, 국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6대 축 기반으로 추진 중임을 밝힘.
- 대통령과 수산부 장관은 전통 지도자와 공동체의 역할이 수산업 지속가능성과 변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공동체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음.

○ 가나 경찰, 해양 작전 강화를 위한 신형 순찰정 인수

- 가나 경찰청은 해양경찰대의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터키에서 제작된 아본급(Avon Class) 순찰정 4척을 새로 인수했음. 이번 인수는 UNODC, 미국 대사관, 일본 정부 등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음. 새 순찰정은 고속·고안정성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직 경찰청장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음.
- 순찰정은 해양 법 집행, 수색·구조, 순찰, 긴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테마 항에서 열린 인도식에는 전직 경찰청장, 해군 관계자, 다수의 고위 경찰 관계자가 참석했음. 내무 장관은 이번 인수를 해양 안전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블루 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강력한 해양 집행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찰청장은 가나의 긴 해안선과 광대한 EEZ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신규 순찰정이 불법 어업, 밀수, 해양 범죄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 항만청, 국제정의선교회, UNODC 등 국내외 기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해양경찰대원들에게 장비를 전문적으로 활용해 국가 해양 영역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음.

○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 (ICCAT) 제29차 정기회의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

- 대서양 참치 보존 국제위원회(ICCAT)는 스페인 세비아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과 쿼터를 재조정하고 12건의 권고와 3건의 결의를 채택했으며, 카리브해 SIDS 국가들의 청새치 제재를 일부 조정하고 BBNJ 협정(2026년 1월 발효 예정) 이행을 대비한 새로운 결의도 채택했음.
- 이와 함께 2026년 이후 가나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국 참치 선망선에 대해 TAC·쿼터 적용, 조업해역 제한, 2개월 금어기, FAD 사용 제한, 상어 혼획 규제 강화가 확정되었으며, 가나 선망선은 가다랑어·황다랑어 중심 조업을 유지하되 VMS·보고체계 강화를 통해 EU 시장 접근과 IUU 방지, 연안국 리더십 확보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상황임.

작성자	이윤홍
-----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김점봉

담당지역 : 세네갈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세네갈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4.1.4.	'26.1.3.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타니 선원(2등 항해사)('89~'92) · 모리타니 선원(1등 항해사)('92~'94) · 現 냉동공장('94~) 및 제2공장('13~) 설립 운영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 6.	· 세네갈-기니비사우, 전통어업 안전확보를 위한 협정 체결
8. 7.	· 세네갈 대통령 동원산업 대표단 접견
9. 4.	· 다카르 사절단, 컨테이너 해제 위해 파견
10. 6.	· 다카르항, 아프리카 최고 컨테이너 항만 선정
11. 6.	· 다카르 항만청 친환경 선박 첫 기항
12. 6.	· 세네갈 및 인근국가 소식 보고

7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07-06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GRANADA	2025-06-02/ 2025-06-0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EGALUZE	2025-06-12/ 2025-06-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06-14/ 2025-06-19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ZEBEROI	2025-06-21/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INT DE ST LOUIS	2025-06-21/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ALBONICA	2025-06-22/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6. 26.	다카르항	550 EURO/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20/MT			
YF	3.4-10kg	\$1,420/MT			
YF	1.8-3.4kg	\$1,320/MT			
YF	1.5-1.8kg	\$1,170/MT			
YF	1.5kg under	\$970/MT			
SJ	3.4kg up	\$1,370/MT			
SJ	1.8-3.4kg	\$1,320/MT			
SJ	1.5-1.8kg	\$1,170/MT			
SJ	1.5kg under	\$970/MT			

BE	10kg up	\$1,170/MT	
BE	3.4-10kg	\$1,170/MT	
BE	1.8-3.4kg	\$1,170/MT	
BE	1.5-1.8kg	\$1,020/MT	
BE	1.5kg under	\$820/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세네갈 - 기니비사우: 전통 어업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
 - 세네갈과 기니비사우는 어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양자 협정 이행 의정서를 체결했음. 이를 통해 세네갈 어민들은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통 어업 분야의 협력이 재개됨.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연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며, 세네갈의 디우프 장관은 협상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합의가 상호 이익을 위한 타협의 결과임을 강조함.

작성자	김점봉
-----	-----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08-07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LAYA LAGA	2025-07-02/ 2025-07-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EGALUZE	2025-07-02/ 2025-07-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7-04/ 2025-07-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07-07/ 2025-07-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7-09/ 2025-07-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07-18/ 2025-07-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DA	2025-07-20/ 2025-07-23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BREEZE	2025-07-21/ 2025-07-23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25.	다카르항	557 EURO/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75/MT			
YF	3.4-10kg	\$1,475/MT			
YF	1.8-3.4kg	\$1,375/MT			
YF	1.5-1.8kg	\$1,225/MT			
YF	1.5kg under	\$1,025/MT			
SJ	3.4kg up	\$1,425/MT			
SJ	1.8-3.4kg	\$1,375/MT			
SJ	1.5-1.8kg	\$1,225/MT			

SJ	1.5kg under	\$1,025/MT	
BE	10kg up	\$1,225/MT	
BE	3.4-10kg	\$1,225/MT	
BE	1.8-3.4kg	\$1,225/MT	
BE	1.5-1.8kg	\$1,075/MT	
BE	1.5kg under	\$875/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세네갈, 참치 가공 산업에 주목하다: 한국 기업의 협력 기대
-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의 동원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참치 어업 및 통조림 가공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핵심 의제는 수산물의 현지 가공으로, 이는 세네갈의 대유럽·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평가됨. 동원그룹은 세네갈을 수산물 가공 및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세네갈’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동원그룹 부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더한 수산물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함. 세네갈 정부도 어업부를 통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유망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로 평가했음.
 - 이번 협력은 세네갈의 국가 전략인 ‘세네갈 신흥 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과도 부합함.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수출 수산물의 고급화가 기대되며, 동원그룹 역시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작성자	김점봉
-----	-----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09-04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스페인회사	ALBONIGA	2025-08-02/ 2025-08-0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 DE ST LOUIS	2025-08-03/ 2025-08-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8-03/ 2025-08-0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RTM KIM	2025-08-04/ 2025-08-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8-05/ 2025-08-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8-17/ 2025-08-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 DE ST LOUIS	2025-08-18/ 2025-08-2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MONTECELO	2025-08-21/ 2025-08-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P ATLANTIQUE	2025-08-22/ 2025-08-25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8. 26.	다카르항	527 EURO/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595/MT			
YF	3.4~10kg	\$1,495/MT			
YF	1.8~3.4kg	\$1,395/MT			
YF	1.5~1.8kg	\$1,245/MT			
YF	1.5kg under	\$1,045/MT			
SJ	3.4kg up	\$1,445/MT			

SJ	1.8~3.4kg	\$1,395/MT	
SJ	1.5~1.8kg	\$1,245/MT	
SJ	1.5kg under	\$1,045/MT	
BE	10kg up	\$1,245/MT	
BE	3.4~10kg	\$1,245/MT	
BE	1.8~3.4kg	\$1,245/MT	
BE	1.5~1.8kg	\$1,095/MT	
BE	1.5kg under	\$895/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말리 화주위원회의 다카르 사절단, 컨테이너 해제 위해 파견

- 말리 화주위원회(CMC)는 바키시마 실라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8월 20일부터 다카르에 파견해 다카르 자유향에 억류된 말리 컨테이너 해제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 다카르 항은 말리 수입·수출 물량의 약 60%가 통과하는 주요 관문으로, 매일 1,000대 이상의 트럭이 다카르-바마코 회랑을 오가지만 항만 혼잡으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체류해 체선료와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필수 소비재 공급 지연 및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CMC는 세네갈 항만 당국과 협력해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산디아라 내륙항 건설과 다카르-바마코 철도 재활성화 등을 통해 항만 혼잡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자 함. 이번 임무는 말리 경제 운영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작성자

김점봉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10-06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STRM KIM	2025-09-02/ 2025-09-0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9-06/ 2025-09-09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MONTECELO	2025-09-08/ 2025-09-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INT DE ST LOUIS	2025-09-11/ 2025-09-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09-11/ 2025-09-16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EGALUZE	2025-09-15/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9-18/ 2025-09-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9-18/ 2025-09-2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9-19/ 2025-09-24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6.	다카르항	576 EURO/L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95/MT			
YF	3.4-10kg	\$1,495/MT			
YF	1.8-3.4kg	\$1,395/MT			
YF	1.5-1.8kg	\$1,245/MT			
YF	1.5kg under	\$1,045/MT			

SJ	3.4kg up	\$1,445/MT	
SJ	1.8-3.4kg	\$1,395/MT	
SJ	1.5-1.8kg	\$1,245/MT	
SJ	1.5kg under	\$1,045MT	
BE	10kg up	\$1,245/MT	
BE	3.4-10kg	\$1,245/MT	
BE	1.8-3.4kg	\$1,245/MT	
BE	1.5-1.8kg	\$1,095/MT	
BE	1.5kg under	\$895/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선정된 다카르 항
 - 다카르 항은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평가되며, 2023년 -82점에서 2024년 +23점으로 크게 개선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성과 향상을 보인 항만 중 하나로 꼽힘. 이는 수년간 지속된 항만 인프라와 물류 서비스 투자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2008년부터 DP World가 운영해온 다카르 항은 신규 크레인 도입, 보관 구역 확장,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으며, 말리 등 내륙국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로·철도 개선과 세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통관과 환적 시간을 크게 단축함.
 - 아프리카 전반에서는 여전히 많은 항만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카르의 급성장은 명확한 투자 전략과 물류·제도 개혁이 항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줌. 북아프리카의 포트사이드와 탕헤르메드, 그리고 중국 주요 항만들과 함께 다카르 항은 지역 및 글로벌 항만 경쟁 구도 속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작성자	김점봉
-----	-----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11-06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LAYA DE LAGE	2025-10-02/ 2025-10-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10-07/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EGALUZE	2025-10-07/ 2025-10-0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0-07/ 2025-10-1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10-13/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ALBONICA	2025-10-14/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24.	다카르항	550 EURO/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775/MT			
YF	3.4-10kg	\$1,675/MT			
YF	1.8-3.4kg	\$1,575/MT			
YF	1.5-1.8kg	\$1,425/MT			
YF	1.5kg under	\$1,225/MT			
SJ	3.4kg up	\$1,625/MT			
SJ	1.8-3.4kg	\$1,575/MT			
SJ	1.5-1.8kg	\$1,425/MT			

SJ	1.5kg under	\$1,225/MT	
BE	10kg up	\$1,425/MT	
BE	3.4-10kg	\$1,425/MT	
BE	1.8-3.4kg	\$1,425/MT	
BE	1.5-1.8kg	\$1,275/MT	
BE	1.5kg under	\$1,075/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 다카르 항만청(PAD) : Sallaum Lines의 친환경 선박 ‘L’Océan Breeze’, 아프리카 첫 기항
- 다카르 항만청(PAD)은 세계은행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선정된 데 이어, 친환경 신조 RoRo선 ‘L’Océan Breeze’의 첫 아프리카 기항을 맞이하며 경쟁력을 강화함.
 - 이 선박은 LNG와 전통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시스템을 갖추고, 7,500 CEU의 적재 능력으로 탄소와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임. Sallaum Lines의 나탈리 살롬 이사는 다카르를 “단순한 정박지가 아닌 글로벌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고리”라 평가하며, 다카르 항의 지리적 강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 평가함.
 - 이번 성과는 항만 평가 순위 상승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다카르가 서아프리카 및 국제 물류 시장의 주요 관문이자 ‘친환경 해상 물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작성자

김점봉



보고구분	정기	국가	세네갈	보고일	2025-12-06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SEA DEFENDER	2025-11-01/ 2025-11-0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1-05/ 2025-11-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11-11/ 2025-11-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T SAINT LOUIS	2025-11-13/ 2025-11-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11-14/ 2025-11-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1-17/ 2025-11-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AN FRANSISO	2025-11-20/ 2025-11-24	하역	다카르항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26.	다카르항	641 EURO/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620/MT		
YF	3.4~10kg		\$1,520/MT		
YF	1.8~3.4kg		\$1,420/MT		
YF	1.5~1.8kg		\$1,270/MT		
YF	1.5kg under		\$1,070/MT		
SJ	3.4kg up		\$1,470/MT		
SJ	1.8~3.4kg		\$1,420/MT		
SJ	1.5~1.8kg		\$1,270/MT		
SJ	1.5kg under		\$1,070/MT		

BE	10kg up	\$1,270/MT	
BE	3.4~10kg	\$1,270/MT	
BE	1.8~3.4kg	\$1,270/MT	
BE	1.5~1.8kg	\$1,120/MT	
BE	1.5kg under	\$920/MT	

기타 동향

○ 리프트 벨리얼 발생현황

- 세네갈에서는 9월 21일 북동부 지역에서 리프트벨리얼이 최초 발생한 이후 중부를 거쳐 남부 지역까지 확산 중임. 2025년 11월 3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530명이며, 사망자 31명, 완치자 490명으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생누이 지역에서 36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마담(39명), 파탁(38명), 카올락(31명), 루가(22명), 다카르(17명) 순으로 확인됨. 이 외에도 탐바쿤다(10명), 띠에스·콜다(각 4명), 카프린·케두구(각 2명) 등 다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되어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엠폭스 발생현황

- 8월 22일 첫 확진자 사례가 보고된 이후 총 9건의 확진 사례와 2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음. 확진자 9명 전원은 완치된 것으로 보고됨. 지역별로는 다카르에서 확진 및 의심 사례 9명, 지겐쇼우에서 확진 또는 의심 사례 1명이 확인되었음. 또한 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이 관찰 및 추적 관리 중임.

세네갈 인근 국가 기타 동향

○ 기니비사우 쿠데타 발생

- 11월 26일(수) 기니비사우 군은 "국가완전장악"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해임하며 현재 진행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 기니비사우 "질서외복을 위한 군사령부"에 의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기니비사우의 모든 육로 항공 및 해상 국경이 폐쇄 되었으며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시작됨.

○ 만리 소식

- 최근 만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 무슬림지지그룹(I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 되면서 유조트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부족 문제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 되고 있는 만리에 경보)한국 시간 11.4일(화) 00시부터 여행금지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작성자

김정봉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윤정환

담당지역 : 뉴질랜드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뉴질랜드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4.8.20.	'26.8.19.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양, 남빙양 어장 트롤선 항해사('76~'84) · 오양수산 소속 뉴질랜드트롤선 선장('84~'86) · 동남 뉴질랜드지사 기지장 역임('90~'93) · Sea Jho Co. Ltd.(뉴지 법인) 설립('95~)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9.	· 지속가능 어업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 요약
8.8.	·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 요약
9.8.	· 뉴질랜드 어업법 대개정 요약
10.9.	· 수산·양식업 확대를 위한 해양공간 필요 등 1건
11.10.	· 뉴질랜드 해역 해양 열파 증가로 인한 어업위기 심화 등 1건
12.4.	· 수산업계 트롤 금지에 항소 제기 등 1건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07-09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5-06-18/ 2025-06-20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5-07-02/ 2025-07-03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6-30/ 2025-07-03	하역 및 연간 수리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6-25/ 2025-06-27	유류 및 하역	DUNEDIN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7.09	Z	MGO Dunedin 939 USD/MT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BARRACOUTA	2L/L/M/S	1900/1850/1750/- USD/MT			
SQUID	2L/L/M/2M/S/2S	5350/5450/5700/5500/3750/- USD/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뉴질랜드의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 24일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어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속 가능성 수치: 뉴질랜드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해역을 포함한 남서태평양 지역의 85.5%의 어족 자원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쿼터 관리 시스템(QMS): 1986년 도입된 QMS는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 성과가 강조되었음. - 협력의 결과: 어부, 과학자, 지역 보호자(kaitiaki), 자원봉사자, 규제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세대를 거쳐 협력한 결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임. 					

- 법 개정 제안: 해양수산부 장관 세인 존스는 어업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Fisheries Act 개정을 제안했으며, 이는 기존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해산물(kaimoana)이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함.

작성자

윤정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08-08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7-30/ 2025-08-01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7-24/ 2025-07-25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7-23/ 2025-07-24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7-18/ 2025-07-19	유류 및 하역	DUNEDIN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8.06	Z	961 USD/MT		MGO Dunedin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HOKI	2L/L/M/S	2400/2400/2200/2150 USD/MT			
HAKE	3L/2L/L/M/S	6700/6700/6050/5450/5250 USD/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8월 발의)은 어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개정안은 생태계 기반 어획할당량(EBS) 의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나 해양생태계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는 할당량 조정 절차를 도입했음. 또한 모든 대형 트롤선에 적용되던 선내 CCTV 설치 의무가 일부 선박으로 축소되며, 모니터링 비율도 100%에서 3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 혼획·폐기 보고는 즉시 보고에서 분기·연간 단위로 완화되고, 관찰자 배치 의무도 축소됨. - 이와 함께 공공정보법(OIA)에 따른 어획 영상과 보고서의 공개 제한이 확대되어 국민과 연구자의 감시·검증 권한이 축소됨. 위반·제재 절차도 간소화되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일원화되고, 중대한 위반도 행정·형사처벌 수단이 줄어듦.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산업 경쟁력과 어업자의 편의를 강조하는 반면, 해양 생태계 보전과 공공의 투명성 확보 측면은 약화되는 것이 핵심임. 					
작성자		윤정환			

9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09-08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8-21/ 2025-08-22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9-04/ 2025-09-05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8-29/2 025-08-30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8-26/ 2025-08-27	유류 및 하역	DUNEDIN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9.03.	Z	916 USD/MT		MGO Dunedin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HOKI	2L/L/M/S	2000/1950/1850/- USD/MT			
WAREHOU	2L/L/M/2M/S/2S	5200/5350/5750/5550/4250 USD/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뉴질랜드 어업법 대개정 : 양식 산업 성장 기회와 환경 보전의 갈림길</p> <p>-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외래 해조류 카울러파가 급속히 확산되며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 해조류는 보트와 낚시 도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토착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최대 94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단체들도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p>					
작성자	윤정환				

10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10-09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5-10-04/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5-09-28/ 2025-09-2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9-26/	하역 및 연간 수리	LYTTELTON	
JAICO LTD	PACINUI	2025-10-05/ 2025-10-06	유류 및 하역	DUNEDIN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0..07	Z	937 USD/MT		MGO Dunedin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WAREHOUS	3L/2L/L/M/S	2250/1950/-/-/ USD/MT			
BARRACOUTA	2L/L/M/S/	1900/1850/1650/1550 USD/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뉴질랜드 어업, 수십 년 된 어족자원 데이터 갱신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북섬 남부 해역(Area 2)의 어족자원 조사는 1996년 이후 약 30년간 신규 조사 없이 당시 자료를 기반으로 어획 할당량(TAC)이 설정되어 왔음. 이로 인해 실제 어획 상황과 할당량 간 괴리가 발생하여, 도미(snapper)는 어획량 대비 할당량이 낮고 일부 어종은 할당량이 과도해 남획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Gisborne Fisheries, Seafood NZ 등 산업계와 정부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추진 중이며, Earth Science New Zealand의 리처드 오드리스콜 박사가 참여하는 등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어획량 관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p>○ 뉴질랜드 수산·양식업 확대를 위한 해양 공간 필요 (RNZ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 24일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어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작성자		윤정환			

11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11-1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0-04/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11-0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FORTUNNI	2025-09-2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PACINUI	2025-11-0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HAPPINUI	2025-11-08/	매수 후 수리	WHANGAREI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1.04	Z	955 USD/MT		MGO Dunedin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LING	3L/2L/L/M	5550/5550/5150/4500 USD/MT			
HOKI	2L/L/M/S	2150/2150/1950/1750 USD/MT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세계 최초 해조류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파이너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파에로아(Paeroa)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조류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파이너지가 설립 되었음. 가족기업 AgriSea가 주도한 이 시설은 해조류 바이오자극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나노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을 생산하며, 해당 소재는 의료·농업·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함. - 본 사업은 뉴질랜드의 순환형 바이오경제 및 해조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 해양 기반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뉴질랜드 해역, 해양 열파 증가로 인한 생태, 어업 위기 심화

- 뉴질랜드 해양 연구기관 Earth Sciences New Zealand(구 NIWA)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변 해역에서는 장기적 해수 온난화와 단기 해양 열파가 점차 빈번·강화되고 있음. 1982~2022년 동안 해수면 온도는 10년당 0.2~0.3℃, 해저 온도는 약 0.1℃ 상승했으며, 동해안·태즈먼해·채텀 라이즈 인근에서 온난화가 두드러짐. 북섬 해역은 고온화가 가장 빠르고, 남섬은 열파가 더 길고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이로 인해 어종 분포 변화 및 일부 어업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기후 변화 대응형 어업 관리와 해양 열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해당 시스템은 MBIE Endeavour Fund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어업·해양 산업 및 원주민 공동체의 사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작성자	윤정환
-----	-----

12월 활동보고서



보고구분	정기	국가	뉴질랜드	보고일	2025-12-04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0-04/ 2025-12-1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2-14/ 2025-12-17	하가 후 수리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11-0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FORTUNNI	2025-09-26/ 2025-12-11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PACINUI	2025-11-02/ 22025-11-2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HAPPINUI	2025-11-08/ 2025-12-28	매수 후 수리	WHANGAREI	
JAICO LTD	HAPPINUI	2025-12-02	하가 후 수리	DUNEDIN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2. 2.	Z	0.85 USD/L		MGO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BARRACOUTA	2L/L/M/S	2050/1950/1850/1700 USD/MT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회사	지원(협의) 내용			
2025.12.04./ DUNEDIN	JAICO LTD	선원 격려차 방문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수산업계, 코로만델 트롤 금지에 항소 제기</p> <p>- 뉴질랜드 수산업 단체 Seafood New Zealand는 와이카토 지역위원회의 코로만델 연안 저인망(바닥</p>					

트롤) 금지 계획이 법적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며 항소를 제기했음. 수산업계는 어업 관리 권한이 국가 차원의 Fisheries Act에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RMA를 근거로 어업을 규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환경단체는 해당 조치가 어업 규제가 아닌 해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환경 관리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음. 이번 사안은 Fisheries Act와 RMA 간 권한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항소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연안 어업 규제 체계의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주)자이코, 트롤선박 구매 후 수리 중

- 포추누이, 패시누이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조업해오던 TOMI MARU 87호를 구매하여 수리 중에 있음. 세 번째 선박명은 해피누이고, 1월 중순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할 계획임

작성자	윤정환
-----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성 명 : 이동춘

담당지역 : 모리셔스

보고기간 : 2025.7.~2025.12.





담당지역	모리셔스	활동기간	위촉일	만기일
			'25.10.15.	'27.10.14.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스크랩 메탈社 대표('00~'08) · 모리셔스 한국해양/한국수산 대리점 대표('09~) 			

○ 정기보고 6회

구 분	보고 내용
매월	· 한국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주요어가 및 현지 동향보고
7.9.	·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 등 2건
8.4.	· 블루 이코노미 전달 기구 설립추진 등 2건
9.9.	· 해저 지형도 세미나 개최 등 1건
10.9.	· 인도,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 경제 지원 약속 등 2건
11.10.	·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선언 등 1건
12.8.	· 소말리아 해적 활동재개 보고 등 1건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일	2025-07-09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PESCA-BERMEO (SPAIN)	EUSKADI ALAI (Seychelles Flag)	2025-06-02/ 2025-06-17	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Panama Flag)	2025-06-05/ 2025-06-24	하역	포트루이스	
INPESCA-BERMEO (SPAIN)	ITSAS TXOI (Spanish Flag)	2025-06-26/	수리	포트루이스	
COMPAGNIE FRANCAISE DU THON	CAP ST VINCENT (Bahamas Flag)	2025-06-27/	수리	포트루이스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7. 09.	ENGEN	USD 840/ per MT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모리셔스 - EU IUU 어업 대응 협력 대화</p> <p>- 2025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EU 해사수산총국(DG MARE)과 모리셔스 정부 간의 비공식 대화가 열려, IUU 어업 근절 협력 강화와 2024년 EU 권고사항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음. 모리셔스는 수산법 개정, VMS·AIS 규정 도입,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기술적 조치를 소개하며 IUU 대응 의지를 강조했고, EU는 모리셔스를 지역 수산 허브 및 IUU 대응 선도국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힘. 양측은 2011년부터 비공식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음.</p> <p>○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제13차 회의</p> <p>- 2025년 7월 8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SWIOFC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참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도서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리셔스를 포함한 12개국과 FAO, IOC 등 국제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셔스 정부는 MTC(Minimum Terms and Conditions) 지침 채택을 통해 자원 보호와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음. 회의에서는 남서인도양의 참치 어획 중요성과 IUU 어업, 회유성 어종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국가들이 공동 책임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p>					

기타 동향

○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제13차 회의

- 2025년 7월 8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SWIOFC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참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도서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리셔스를 포함한 12개국과 FAO, IOC 등 국제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셔스 정부는 MTC(Minimum Terms and Conditions) 지침 채택을 통해 자원 보호와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음. 회의에서는 남서인도양의 참치 어획 중요성과 IUU 어업, 회유성 어종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으며, 지역 국가들이 공동 책임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 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

작성자

이동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일	2025-08-04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INPESCA-BERMEO (SPAIN)	TXORI AUNDI	2025-07-27/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HEN HONG (Taiwanese Flag)	2025-07-25/	하역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CAP ST MARIE (France Flag)	2025-06-27/	수리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CAP ST VINCENT (France Flag)	2025-06-27/ 2025-07-30	수리	포트루이스 (CNOI)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7.28	VIVO(SHELL)	USD 805/ per MT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CHCL 53억 루피 투자 통해 포트루이스 항만 현대화... 연간 120만 컨테이너 처리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셔스 항만물류공사 (CHCL)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포트루이스 항을 친환경적이고 기술 중심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총 53억 루피 (약 1억 1,5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계획에는 항만 자동화, 하이브리드 크레인 도입, 트럭 게이트 위치 재조정, 보관 주차 환적 공간 확장 등이 포함됨. 디지털 전환과 탄소 배출 저감이 핵심이며, 냉동 컨테이너 처리 능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류 환경도 구축할 계획임. CHCL은 이를 통해 현재 약 70만 컨테이너 수준의 처리량을 2030년까지 120만 컨테이너로 끌어올릴 방침임. - CHCL은 직원 및 청년 대상 교육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며, 인도 정부는 시뮬레이터 자비 제공을 위해 2,500만 루피 (약 54만 6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이는 현지 인력 양성과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 					

일반·투자 동향

- 모리셔스 - 세이셸 협약: 2025년 40만km² 해양 공동관리구역 진전
 - 2025년 7월 29일,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마스카렌 해저지대 공동관리위원회 제 29차 회의에서 약 40만km 규모의 공동 해양관리구역과 관련된 협력을 논의함. 주요 의제로는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환경 보호, 해상 시험 조업, 해저 탄화수소 자원 탐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민간 어업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 어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 양국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동 관리를 재확인하며, 환경 모니터링, 블루카본 및 탄소크레딧 관련 이니셔티브도 논의함. 차기 회의는 연말 세이셸에서 열릴 예정임.
- 모리셔스, 유엔 정상회의에서 로드리게스 주변 16만9천 km² 해양영역 확장 요청
 - 모리셔스는 2024년 3월, 로드리게스 섬 인근 약 16만9천km²의 대륙붕을 자국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공식 요청을 제출했으며, 2025년 7~8월 뉴욕에서 열린 CLCS 제64차 회의에서 이 요청이 검토 중임.
 - 이번 요청은 로드리게스 해령 등 지질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학적 평가를 통해 권고안을 받게 됨. 모리셔스는 이를 통해 EEZ(약 230만km²) 이외의 해양 자원 관리권과 블루이코노미 분야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노리고 있음.
- 모리셔스, 해양 잠재력 실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전달 기구' 설립 추진
 - 모리셔스 정부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 전달 기구(Blue Economy Unit)'를 신설할 계획임. 아르빈 불렐 장관은 국가의 해양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해당 기구는 선디 라마 박사의 지휘 아래 EU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양 산업 개발을 추진하게 됨.
 - 전략 계획 수립, 세이셸과의 교류, 관련 법률 제정(11월 예정)과 함께, 블루 채권과 생물다양성 채권을 통한 금융 조달, 항만 개발 등 해양 기반 산업 활성화가 병행될 예정임. 정부는 청년의 농·어업 참여도 장려하며 해양 농업 통합 전략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

작성자

이동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 일	2025-09-09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HEN HONG (Taiwanese Flag)	2025-03-28/ 2025-05-22	수리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CAP ST MARIE (French Flag)	2025-04-12/ 2025-06-05	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Panama Flag)	2025-05-01/ 2025-06-16	하역	포트루이스 (CNOI)	
	IZAR ARGIA (Spanish Flag)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9.09.	ENGEN	USD 800/ per MT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세계 수로의 날: 해저 지형도 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8월 6일, 모리셔스 머 루즈(Trevessa House, Mer Rouge)에서 ‘해저 지형도: 해양 관리 이행을 가능하게 하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본 행사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해양 여성 네트워크(WOMESA)가 주최하고, 모리셔스 대학교·수로국·주택토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음. - 수로국의 Muthukumar 사령관은 해저 지형도가 안전한 항해, 환경 보호, 연안 회복력, 경제 개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또한 수로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임을 언급하며, 여성과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과 Q&A,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학계·정부·해양 산업 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류를 이어감. 					

일반동향

- 모리셔스 자유무역지대: 글로벌 비즈니스 및 지역 성장의 관문
 - 모리셔스 정부와 경제개발위원회(EDB)는 2025년 8월 21일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활용 기회’ 워크숍을 열어 자유무역지대(Freeport)의 성장 전략을 논의함. 재무부 차관 Dhaneshwar Damry는 Freeport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인프라·항만 현대화와 금융·디지털 연결망 강화를 강조했고, 모리셔스를 인도-아프리카 간 전략적 교역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함.
 - EDB 산제이 분준 의장은 Freeport가 고용과 수출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New Africa Strategy와 연계해 시장을 확장하고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워크숍은 정부·기업·관리회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모리셔스 Freeport의 글로벌·지역 허브 도약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됨.

작성자

이동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일	2025-10-09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ATRADE	ORANGE SPIRIT	2025-09-26/	하역	포트루이스 (C.N.O.I)	
IBL	AFFINIS	2025-09-08/ 2025-09-27	하역	포트루이스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08.	ENGEN	0.69 USD/L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항,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세계 해사의 날 2025: 불렐 장관, 오세안 2025 사전 협의 대화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해사의 날 2025(World Maritime Day 2025) 기념 행사가 “우리의 바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기회”를 주제로 벨 빌리지 라지브 간디 과학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빈 불렐(Dr Arvin Boolell) 장관이 ‘레 아시즈 드 로세앙 2025’ 사전 협의 대화를 공식 출범시켰음. 행사에서는 해양 분야 진로·취업 전시회가 함께 열렸고, 주요 부처 장관과 외교단이 참석했음. - 불렐 장관은 연설을 통해 모리셔스의 무역·식량안보·관광·기후 회복력이 바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 포트·재생에너지·친환경 연료·디지털화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육성과 인도양의 지속가능한 해양 허브로의 도약 계획을 설명했음. 질 파브리스 다비드 주니어 장관은 모리셔스를 220만km² EEZ를 가진 ‘빅 오션 스테이트’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레 아시즈 드 로세앙 2025가 항만·해운 현대화와 탈탄소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정임을 강조했음. 					
일반동향					
<p>○ 인도,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 경제 지원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모리셔스에 보건·인프라·해양 안보 프로젝트를 위해 약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 해당 지원은 보조금과 차관 형태로 이루어지며,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 속에 모리셔스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이번 지원에는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개발 및 감시 활동, 병원 건립, 항만 재개발, 헬리콥터 제공, 2,500만 달러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됨. 인도는 모리셔스의 차고스 제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한편,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의 지속적 존재를 통해 중국 견제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작성자	이동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일	2025-11-10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NAVIERA GALDAR-BERMO	IZAR ARGIA	2025-10-27/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2025-10-06/ 2025-10-31	하역	포트루이스 (CNOI)	
ASTILLEROS DE MURUETA	ELAI ALAI	2025-10-28/ 2025-11-05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PMER	FRANCE TERRE	2025-10-29/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1.10	ENGEN	0.68 USD/L	MGO		
해양 수산업 동향					
<p>○ 모리셔스, 차고스 제도 광범위 해양보호구역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셔스 정부는 약 64만 5천km² 규모의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CAMPA)을 공식 지정했음. 이번 조치는 차고스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재정착을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 구역 내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전면 금지되었음. - CAMPA는 IUCN 기준에 따라 일반 보전 구역, 전통 재정착 구역, 엄격 보전 구역, 서식지 보호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구역별로 제한적 전통 어업·거주·관광만 허용됨. 이는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해양 관리 정책 사례로 평가됨. <p>○ 인도, 모리셔스에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 발표 —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및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모리셔스에 총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모니터링, 국제공항 관제탑 건설, 도로 확장 등 인프라와 해양 안보를 포괄하는 핵심 사업이 포함됨. 이번 합의는 모디 총리와 람골람 총리 회담 이후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해양 안보·국방·보건·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지원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디에고 가르시아 인근 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임. 모리셔스 정부는 이를 단순 원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로 평가했으며, 인도는 EEZ 관리·해저조사·해양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도양 지역 내 영향력과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음. 					
작성자		이동춘			



보고구분	정기	국가	모리셔스	보고일	2025-12-08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FTO)	GEVRED	2025-11-07/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2025-11-30/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PMER	FRANCHE TERRE	2025-10-29/ 2025-11-18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2.08.	ENGEN	0.69 USD/L		MGO	
해양·수산업 동향(어황, 통계, 정책 및 법률, 수출·수입, 사고, 투자 기회)				* 상세사항 기재	
<p>○ 모리셔스, 해양 안보 고위급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제다 개정안(Jeddah Amendment)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2025년 11월 12일부터 14일 까지 모리셔스 플릭앙플락에서 개최되었으며, IMO, EU, IOC 및 서부 인도양·아덴만 지역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음. 모리셔스 정부는 광대한 EEZ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와 대양 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비전을 강조하며, 해양안보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책임임을 재확인했음. - 지부티 행동강령(DCoC)은 2017년 제다 개정안을 통해 해적 대응을 넘어 인신매매, 밀수, IUU 어업, 환경범죄 등 초국가적 해양 범죄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DCoC/JA 체계 하에서 정보공유·공동훈련·역량강화 중심의 지역 해양안보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EU는 Safe Seas Africa 등 다양한 해양 안보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 인도양 지역에 연간 8,0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음. <p>○ 모리셔스, 해양 안보 고위급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0월 말 이후 소말리아 분지와 서부 인도양에서 해적 활동이 조직적으로 재개되었으며, 11월 6일 HELLAS APHRODITE호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해운·보험업계의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 - (1) 최근 해적 활동 증가: 사실과 일정 Dryad Global에 따르면, UKMTO, MSCHOA, 다수의 해운 뉴스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적 활동 					

재개는 10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적 행동 그룹(PAG)이 피랍된 도우(dhow)를 모선으로 이용하면서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모선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300~600해리, 일부 사건에서는 최대 800해리 떨어진 먼 바다까지 공격을 가능하게 했음

- (2) 주요사건

2025년 11월 6일 몰타 선적 HELLAS APHRODITE호가 소말리아 Eyl 인근 560해리 해상에서 모선을 이용한 해적의 기관총·RPG 공격을 받아 탈취 시도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최근 STOLT SAGALAND호 공격 격퇴, MV SPAR APUS호 회피 사례 등 일련의 사건은 해적들이 도우선을 모선으로 활용해 원거리 무장 공격을 재개하고 있음을 시사함.

- (3) 원인과 배경

소말리아 해적 활동 재개는 국제 해군 전력이 후티 대응으로 홍해에 집중되며 소말리아 분지 순찰이 약화된 틈을 이용한 결과이며, 2024년 ABDULLAH호 억류 후 고액 몸값 지급 사례로 수익성이 재확인되면서 금전적 유인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임. 여기에 불법 어업에 대한 지역 불만과 해적 세력의 알샤바브·후티 등 무장단체 연계 가능성도 주요 배경으로 지적됨.

- (4) 해적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산업 대응 지침

Risk Intelligence와 MSCHOA는 소말리아 분지와 아덴만의 해적 위험이 여전히 높으며, 해적이 모선을 활용해 최대 800해리까지 원거리 무장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음. 이에 따라 선박은 BMP5 준수, UKMTO·MSCHOA 신고, 물리적 방어 및 보험 대응을 포함한 고위험 해역 관리가 필요함.

작성자

이동춘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주요 경력

(‘25년 12월 기준)

담당지역	성명	주요 경력
남태평양	 오시영 사모아 (-1일+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양어업협회 사모아 연락사무소 근무, 하와이 한국일보 사모아 통신원 활동('93~'98) · 사모아 한인회 재무 및 총무('94~'07) · 現 사모아 JI HYUN, INC.(수산업) 운영('01~)
	 허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조산업, 마린기업 선일해운 등 냉동사 및 기관장 승선('74~'01) · 사모아 한인회 회장('18~'19) · 現 사모아 H&H, INC. 수산업 회사 대표('01~)
	 김종태 피지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NGAN Fisheries Ltd(합작회사) 설립·운영 · 재피지 한인회 운영이사 역임('07~'09) · 재피지 한인골프회 회장('10~) · 現 C.K.P Fishing Co.,Ltd 이사('98~)
도서국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PNG 한국대사관('91~'93) · Wamomo Seafoods Ltd ('99~'05) · 現 PNG 한인회 부회장 · 現 United Seafoods Ltd.('05~)
남아메리카	 이상우 아르헨티나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창인터네셔널 근무(부산소재 수산 무역)('01) · 해창인터네셔널 페루법인 대표(UltraFrio s.a.c)('02) · Sermar s.a 대표(아르헨티나 소재 수산물 해외유통)('04) · Cipromar s.r.l,대표(아르헨티나 소재 수산물 국내유통)('07) · 現 Kargeexport s.a대표(수산물 가공 수출)
동남아시아	 박상천 인도네시아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RAJAWALI LBS TRACKING SYSTEM 대표이사('10~'13) · 현재 현대중공업 산업차량 부문 딜러 PT. HD FORKLIFT 대표 · PT. NANOOM 컨설팅/ 무역, 유통(수산물)회사 임원('19~현재) · 현대그룹 현대무백스 인도네시아 딜러 임명('20~현재)
아프리카·대양주	 이윤홍 가나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사, 오양수산, SK해운 근무 · 재가나 한인회 체육이사 임원('09~) · 재가나 한인 골프동우회 회장('10~) · SK해운 양산급유 영업소장 · 現 SSK Marine Co.,Ltd 사장
	 김점봉 세네갈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타니 선원(2등 항해사)('89~'92) · 모리타니 선원(1등 항해사)('92~'94) · 現 LA PECHE153 냉동공장('94~) 및 제2공장('13~) 대표
	 윤정환 뉴질랜드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양, 남빙양 어장 트롤선 항해사('76~'84) · 오양수산 소속 뉴질랜드트롤선 선장('84~'86) · 동남 뉴질랜드지사 기지장 역임('90~'93) · 現 Sea Jho Co., Ltd.(뉴지 법인) ('95~) 대표
인도양	 이동춘 모리셔스 (-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0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스크랩 메탈社 대표 · 2009.9월~현재, 모리셔스 한국해양/한국수산 대리점 대표